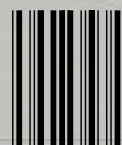


2021- 12

vol. 2

MUSICTLAND

Playground for music teachers



2021



12

CONTENTS



수업시간 ON

major

<특집기획> - 뮤하쌤의 톡톡 리서치

게임으로 음악공부하기, 퀴즈즈!

대중음악사 vol.2

알.쓸.쪼 - 알고보면 쓸모있는 쪼꼬미들

DAW란?

minor

야, 너두 카혼 만들 수 있어!

게이미피케이션 음악 수업

수업의 시선으로 본 다큐멘터리 - 악기는 무엇으로 사는가?



수업시간 OFF

[인터뷰1] 슬기로운 은퇴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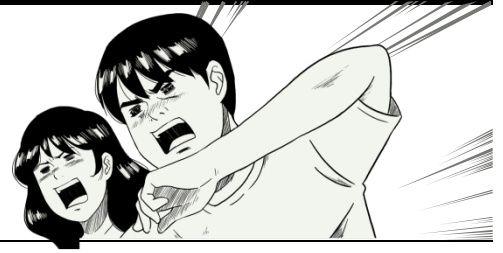
[인터뷰2] 음플릭스 음악크루

신규교사 다이어리 - 우당탕탕 수행평가편

퇴근 후 삶, 워라벨 라이프

소포모어 징크스

Sophomore Jinx [sa:fəməʊ:(r) dʒɪŋks]



2년차라는 의미의 소포모어(sophomore)와 징크스(jinx)를 합친 단어로, 첫 번째 결과물에 비해 두 번째 결과물이 흥행이나 완성도에 있어 부진한 것을 뜻하는 말.

영화를 보다보면 전편만한 속편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음악도 1집이 명반이 된다면 2집은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역시 전국의 음악선생님들께 2호가 아쉬움을 드릴까 노심초사하며 소포모어 징크스를 피하고자 창간호 제작의 즐거움은 잠시 접어두고 압박감 속에서 치열하게 탈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저 즐겁게 읽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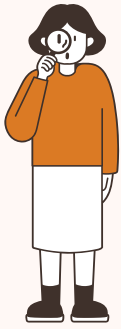
이 곳은 음악선생님들의 놀이동산 뮤직T랜드니까요.



현직교사들의
수업 아이디어



수업시간 ON



<스페셜 테마기획> 뮤직트랜드 창간호 뒷풀이

뮤하샘의 톡톡 리서치

에디터. 뮤하샘

뮤직트랜드

드디어 2021년 3월 31일 뮤직트랜드 창간호 두둥!

전국의 음악선생님들의 큰 관심을 받은 뮤직트랜드 뮤직트랜드

음악선생님들과 조금 더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인스타@MUSICTLAND 채널에서 '톡톡이벤트'를

8월 5일(목)~8월 13일(금) 일주일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음악선생님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코너!



톡톡 리서치 결과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뮤직트랜드 창간호에 대한 소감 및 2호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세요



제가 생각한것보다 1호가 훨씬 퀄리티도 좋고 귀여운 일러스트에 정말 현실적이고 그렇지만 너무 대단하신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의견, 방법들이 가득 담겨있었거든요. 기다리던 2호 출간이더니 너무 설레요!!! 선생님들 너무 멋지십니다!!!

알찬내용과 음악선생님들만의 지식들이 맘에 들었어요

유튜브로 구독하던 샘들을 창간호에서 보고 깜놀했어요

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잡지가 나오다니 계속 나오길 기대해요!!! 창간호에 담긴 여러 팁들이 아주 유용했는데 2호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

음악교사로서 많은 동기를 주는 책이었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음악교사가 수업을 즐겁게 준비하고 행할때 학생들도 즐겁고 행복해진다는걸 느껴요! 2호 책도 음악교사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샘들도 서로를 알아보고 저절까지만 드신것을 보고 추진력도 대단하다는 생각& 음악교사를 한곳으로 집결시킨 힘 & 나눔과 공유가 감사했어요.

학교 현장 경험 전혀 없는 신규교사이입니다. 뮤직트랜드 창간호에 소개된 여러 선배 선생님들께서 소개해주신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호도 너무 기대돼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날지 궁금합니다.^^

음악 교육의 소식과 수업 아이디어들이 있을지 기대됩니다
온라인수업과 관련한 수업사례가 좋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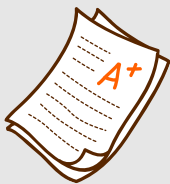
원격이 안정화되든? 이 시점에선 어떤 이야기로 2호가 구성될지 기대됩니다~ 창간호 아닌듯 알차고 유용한 나눔과 정보들이 좋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혼자 컴퓨터와 씨름하며 나만 고전하나 했는데 선생님들의 소식이 너무 반가웠어요 나에게는 동지가 있다는 기분입니다
음악 교육의 소식과 수업 아이디어들이 있을지 기대됩니다

복직 후 막막했던 나의 첫 학기에 한 줄기 빛이었을까요? 2년간 휴직하며 잃었던 수업에 대한 감을 찾기에 좋았고 교무실 꿀템소개도 좋았고 코로나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이 해소되는 고마운 창간호였어요!



1학기 학교 예산으로 무엇을 구입했나요?



1학기 수행평가는 무엇을 하였나요?



표현

음정구하기
스마트폰 드럼연주
크롬뮤직랩(송메이커)
장구장단
리코더
캠페인송만들기
업사이클 난타
칼림바
가창(교가)
통기타연주
카혼
우쿨렐레
컴타
한국가곡 부르기
자유발표하기
작곡
시창, 청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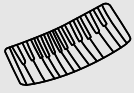
감상

감상실음평가
서음사감상
비주얼싱킹감상
서양음악사 가이드북
감상듣기평가
네가해라 음악사
낭만시대의 음악
국악감상
감상 포트폴리오
플레이리스트 만들기
영화 감상



생활화

인공지능과 음악
보이노라디오
음악에세이
음악성찰일지
나만의 힐링 앨범과 커버 만들기
서양음악의 연주형태
음악기초이론
음악일기
아이돌팬덤문화
음악치료
음악신문
음악에 관련된 직업 발표하기
세계여러나라의 민요 여행하며 발표하기
폴리아티스트 진로 영상제작



음악 시간에 활용하기 좋은 교구 또는 악기를 추천해 주세요



기타	오르골	칼림바	우쿨렐레
전자드럼, 드럼	화이트보드	칼림바 어플	구글 VR 박스
음악이론카드	손가락 모형 막대기	붐웨어	명상악기 싱잉북, 팽샤



2학기 수행평가는 무엇을 계획하시나요?



표현

칼림바
지휘
통기타연주
인공지능음악 활용 반주 만들기
우쿨렐레
리코더
악보 사보하기
바흐와 인공지능
조별밴드
기타
핸드벨

작곡
크롬뮤직랩 음악 만들기
오르골
펜비트
붐웨어
바디퍼커션
가창
자작곡만들기
자유실기
칼림바 이중주
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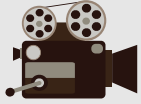
감상

극음악 비교와 영화음악 발표
뮤지컬감상
국악이나 동서양의 극음악
효과 음악
서양음악 감상
오페라 감상



생활화

보이는 라디오
오디오북만들기
공연 기획
전통음악 감상과 우리문화 보존 방법 토론
음악 엽서 보내기
학급음악회
자유주제발표
음악독서



음악 수업에 활용하기 좋은 영화를 추천해 주세요

위대한 쇼맨

01

BEST

추천이유: 유명한 노래들이 많이 수록되어있어 듣는 귀가 재밌습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라 학생들에게 볼만한 영화예요!

수록곡들이 넘 좋고, 영화의 내용도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자존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해요.

수업활용: 음악이 좋고 영화 스토리가 담고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쇼맨 OST

〈This Is Me〉, 〈Never Enough〉, 〈The Greatest Showman〉



디즈니 코코

02

추천이유: 영화를 통해 음악으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남미 문화를 처음으로 다룬 영화이면서 음악과 멜로디가 정말 좋아서 학생들이 집중해서 끝까지 잘 감상합니다.

수업활용: 생소한 멕시코 음악을 소개하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즈니 코코 OST

〈Remember me〉 감동적인 음악!



트롤

03

추천이유: 영화 속 등장하는 트롤들은 노래와 춤을 추는 것이 일상입니다. 부정적인 기운이라고는 없고 100% 행복으로 가득한 느낌을 주는 음악들이 가득한 영화라서 수업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수업활용: 영화 속 내용으로 퀴즈풀기하고 각자 장르 선택 및 특징을 자료 조사하고 감상으로 연결했습니다.

트롤 OST

〈True Colors〉, 〈TRÖLLS〉, 〈September〉, 〈They Don't Know〉





음악 수업에 활용하기 좋은 영화를 추천해 주세요

오빠생각

04

추천이유: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들의 노래는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전쟁 한가운데 놓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전쟁 한가운데, 작은 노래로 기적이 시작된다는 내용으로 합창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수업활용: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오빠 생각 영화는 교과 융합 수업이 가능합니다.

오빠생각 OST

〈고향의 봄〉, 〈오빠생각〉, 〈즐거운 나의 집〉, 〈그리움〉, 〈one fine day〉



드럼라인

05

추천이유: 화려한 드럼연주가 볼만합니다! 남학생들이 좋아하더라구요 빠른 비트의 리듬에 현란하면서 하나가 된 퍼포먼스의 마칭밴드와 드럼라인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댄스배틀, 랩배틀이 아닌 드럼배틀을 볼 수 있어요.

수업활용: 드럼이라는 악기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비트가 주는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드럼라인 OST

〈Been Away〉, 〈I Want A Girl Like You〉, 〈My Own Thing〉



소울

06

추천이유: 뉴욕의 음악선생님이 꿈에 그리던 최고의 밴드와 재즈클럽에서 연주하게 된 날 부터 영화가 시작되며 재즈 음악이 많이 나와서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적이 노래를 불러서 인기가 있어요.

수업활용: 일단 주인공이 재즈연주자라서 재즈에 대하여 알려주고 삶의 태도에 관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강추!!!

소울 OST

〈It's All Right〉, 〈Born to Play〉, 〈Feel Soul Good〉





음악 수업에 활용하기 좋은 영화를 추천해 주세요

하모니

07

추천이유: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느낄 수 있어서 학생들이 감동적으로 감상하면서 노래를 들어 볼 수 있어요.

수업활용: 여성 죄수들이 합창을 통해 하나가 되는 영화이기에 학생들이 합창의 소리를 이해하는데 좋은 영화입니다.

하모니 OST

〈It's All Right〉, 〈Born to Play〉, 〈Feel Soul Good〉



말할 수 없는 비밀

08

추천이유: 다양한 곡이 등장하는 몇번을 봐야 이해되는 시공간을 뛰어 넘은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 피아노 연주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고 영화 내용도 흥미 진진하여 학생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어요.

수업활용: 연탄곡, 피아노 배틀 등 피아노 연주를 통해 다양한 클래식을 감상할 수 있어요. 영화에 등장하는 원곡 클래식을 감상하고 서양음악 수업에 활용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비밀 OST

〈백조의 호수〉, 〈말할 수 없는 비밀 연탄곡〉



호로비츠를 위하여

09

추천이유: 따뜻한 사제지간 이야기가 나오면서 클래식 명곡이 많이 등장하여 이야기 속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직접 등장하여 연주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수업활용: 중간에 등장하는 자연의 소리를 듣고 음악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폴리 아티스트 직업과 연결하여 소리 탐색하는 활동, 영화 속에 등장하는 클래식을 심층 탐구 할 수 있어요.

호로비츠를 위하여 OST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invention 2 BWV773 - J. S. B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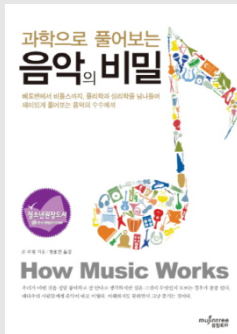
음악 수업에 활용하기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아빠, 음악이 뭐예요 10대를 위한 톡톡 튀는 클래식 (12,000원)



클래식이 어렵고 접하기 힘들다는 편견을 허물기 위해 아빠와 딸의 대화를 통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클래식 음악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박자와 리듬의 개념부터 음악에 얹힌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클래식에 대한 모든 것을 흥미진진하게 탐색할 수 있다. 클래식이 어렵고 접하기 힘들다는 편견을 허물기 위해 아빠와 딸의 대화를 통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클래식 음악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박자와 리듬의 개념부터 음악에 얹힌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클래식에 대한 모든 것을 흥미진진하게 탐색할 수 있다.

과학으로 풀어보는 음악의 비밀 (15,800원)



베토벤에서 비틀스까지, 물리학과 심리학을 넘나들며 재미있게 풀어보는 음악의 수수께끼 『과학으로 풀어보는 음악의 비밀』. 과학자이자 음악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궁금증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면서, 매혹적인 음악의 세계로 안내한다. 아기들은 어떻게 노래를 배우는지, 어떤 노래를 들으면 왜 눈물이 나는지, 음악가들은 악보에 적힌 수많은 음들을 어떻게 외우는지 등 음악의 과학과 심리학에 관련된 문제들을 재치 있고 유쾌하게 풀어냈으며, 일반 청자와 연주자들이 대개 모르고 있지만 알아야 할 사실들을 알려준다.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 수업 100 (15,000원)



드라마《베토벤 바이러스》의 음악감독이자 실제 모델, 서희태 지휘자와 함께하는 처음 만나는 클래식 음악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 수업 100』 클래식 음악가와 오케스트라에 대한 100가지 이야기를 5가지 주제로 나누어 이야기 한다.

1부에서는 콘서트에 대한 상식을 다루고, 2부와 3부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악기들, 몇 백년이 흘러도 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남은 음악과 그 음악을 만든 작곡가 33명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았다. 마지막 4부와 5부에서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되는 음악의 종류와 음악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음악회를 어려서부터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며, 기본 예절과 각종 악기에 관한 모든 것을 빠지지 않고 담았다.

오늘부터 칼림바 (12,000원)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악기 칼림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감성을 채워주는 악기이다. 동요, 가요, 팝송, O.S.T., 캐롤 등 칼림바와 어울리는 다양한 곡을 선곡하였으며, 단선율부터 시작하여 다성부의 연주, 2중주까지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수록하였다. 악보 상단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음원을 들을 수 있으며, 특히 반주 음원을 들으며 연주하면 누구나 연주자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초판 인쇄본이 완판되었고, 2021년 12월에 나온 2쇄에는 친해지기가 들어가 처음 연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습곡이 구성되어 학교에서 활용하기 좋다.



음악 수업에 활용하기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차차르트&이종대왕의 음악 수업 놀이 (15,000원)



음악 수업 시간 걱정 끝! 바로 떠먹을 수 있는 쉽고 즐거운 음악 놀이!
이 책은 가창뿐만 아니라 음악 이론, 감상, 창작 등의 영역에 놀이를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음악 관련 놀이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 놀이 활동들을 숙지한다면 선생님의 개입이나 특별한 준비 없이도 언제든지 음악 시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과정이 개정되어도 변함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적용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그 어떤 교과보다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음악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악 지식 사전 (24,000원)



음악상식은 개인에 따라 지식수준이 달라 음표와 박자 등 음악에 대한 기초 지식에서부터 음악사, 음악가, 각종 음악 장르를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였답니다.
또한, 궁금하고 간단한 상식의 내용들을 정겨운 퀴즈로 엮어 독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자아내게 했지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음악 지식도 쌓아 교회 찬양대, 각양의 합창단 등에서 단원으로로서 자신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음악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153 음악 지식사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기 구조 교과서 (15,000원)



소리가 나는 것을 모두 악기라 할 수 있을까? 음악을 만드는 컴퓨터나 ASMR에 쓰이는 도구도 악기라 할 수 있을까? 《악기 구조 교과서》는 악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한다. 악기의 큰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개론에 체계적인 악기 분류표를 담았다. 각 장에서는 다양한 악기의 발음 원리와 구조를 소개한다. 낯설거나 어려울 수 있는 음향학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생생한 사진과 그림을 덧붙였다. 클래식 악기는 물론 세계의 민속악기, 각 악기의 분류, 관심이 높아지는 전자악기까지 소리와 악기의 메커니즘을 알아본다.

1일 1클래식 기쁨 (17,800원)



경이로운 클래식 음악으로 한 해를 가득 채우다!
영국의 BBC 클래식 방송 진행자이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클레먼스 버턴힐이 수년간 모아온 보물 같은 작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1일 1클래식 1기쁨』. 불후의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매일 한 곡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다.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날짜와 그날의 추천 음악에 계절 감각, 젠더 감수성까지 갖춘 1년분의 클래식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클래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혹은 이미 클래식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도 그 매력에 충분히 빠져들 만한 플레이리스트로 구성된 이 책의 주요한 특징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사실이다.



뮤직트랜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주세요.

음악샘들은 수업의 고민을 누구와 나누나요?

많은 학교가 음악교사가 한두명이라 학년을 혼자 맡으면 수업공유가 쉽지 않아서요

수업 꿀팁 (ex : 모둠 구성 방법, 수업에서 무기력한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법 등, 수행평가 꿀팁등등...)

뮤직트랜드 창간호의 구성이 넘 좋았어요!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교과 수업과 관련된 것,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구성으로 좋은 책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고백)

다른 선생님들의 답변이 무지 궁금합니다

잡지 만드실때 어떻게 아이디어가 모여 탄생했는지 궁금합니다 ^ ^



뮤직톡톡쇼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리서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손, 박은영 선생님, 까도녀틀리, 율랑, 김레지나 선생님, 작약쌤, 김진주 선생님, 그레이스,

이유진 선생님, 박선정 선생님, 김예은 선생님, 제민경 선생님, 박찬일 선생님,

조한나 선생님, 김범수 선생님

게임으로 공부하기

Quizizz



활용법

에디터 이지샘

1. 만남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원격수업 관련 여러 연수를 들었는데 그때 소개받았던 여러 사이트 중 하나였다. 패들릿, 카훗 등 이미 알려진 유명한 사이트가 많았는데 나는 이상하게도 Quizizz에 꽂혀서 바로 그다음 주부터 Quizizz 제작에 뛰어들게 된다.

2. Quizizz가 뭔가요?

Quizizz는 시험, 단위 테스트 및 즉석 테스트에 사용되는 창의성 소프트웨어로, 게임의 형식을 띄어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으며 온라인 수업 시 활용도가 높다. 기간을 설정하고 과제 부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3. 음악 교과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신 분도 영어 선생님이셨고,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교과는 수학, 과학과 같은 주지 교과인 것 같았다. 사실 나도 우와 게임 재미있다! 하고 뛰어들었지만, 이걸 음악에서 어떤 주제에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었다. 우선 암기가 필요한 주제에 활용하기로 하고 문제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4. 제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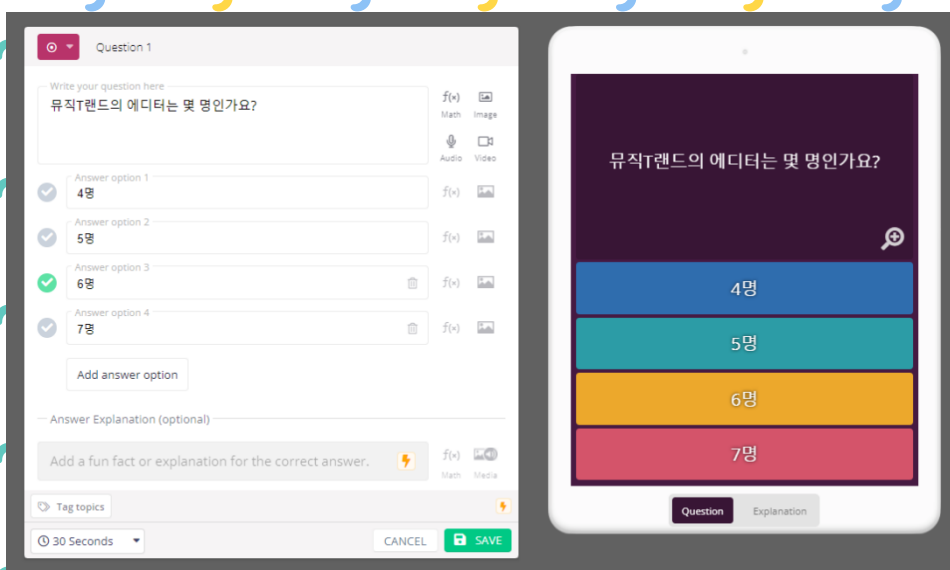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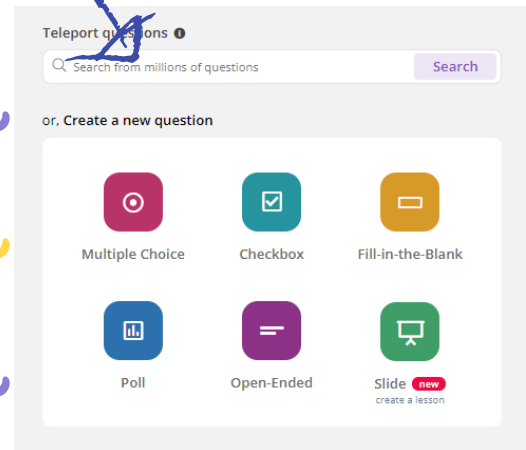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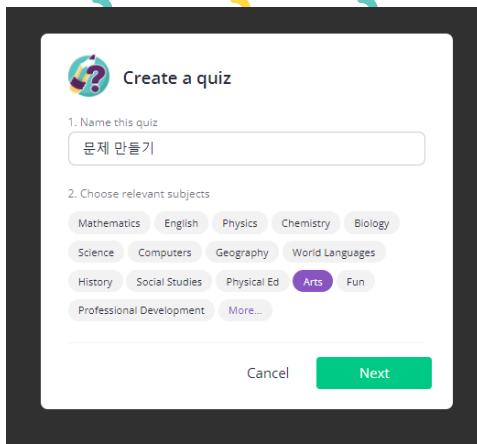
연수에서는 다양한 학습 사이트 소개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문제를 제작하는 방법은 자세히 다룰 수 없었다. 그래서 정보의 바다 너튜브를 찾아봤지만, 인기가 없는지 거의 자료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독학하면서 알게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작 순서

1) 가입

- <https://quizizz.com/>으로 들어가 우측 상단 sign up을 누르고 가입하면 된다. 구글과 연동되기 때문에 구글 클래스룸이나 zoom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로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

2) 좌측 상단 Create를 클릭한 후 Quiz를 선택 -> 과목 설정 -> 문제 유형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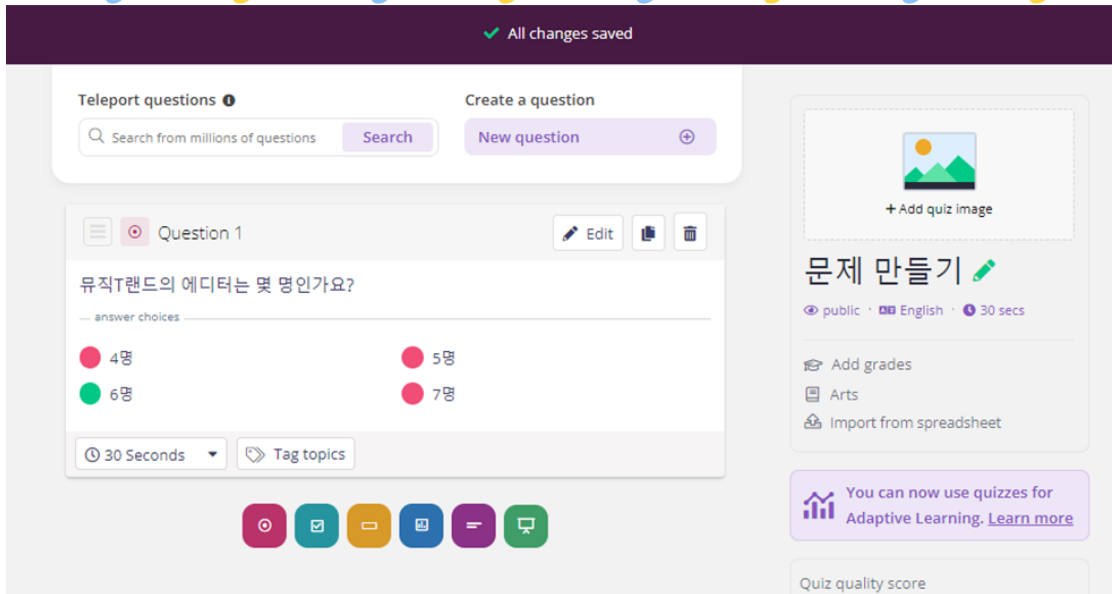


- 문항 아래를 보면 30초라고 되어있는데 한 문제를 푸는 시간이며, 시간은 5초에서 15분 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완성 후 저장을 누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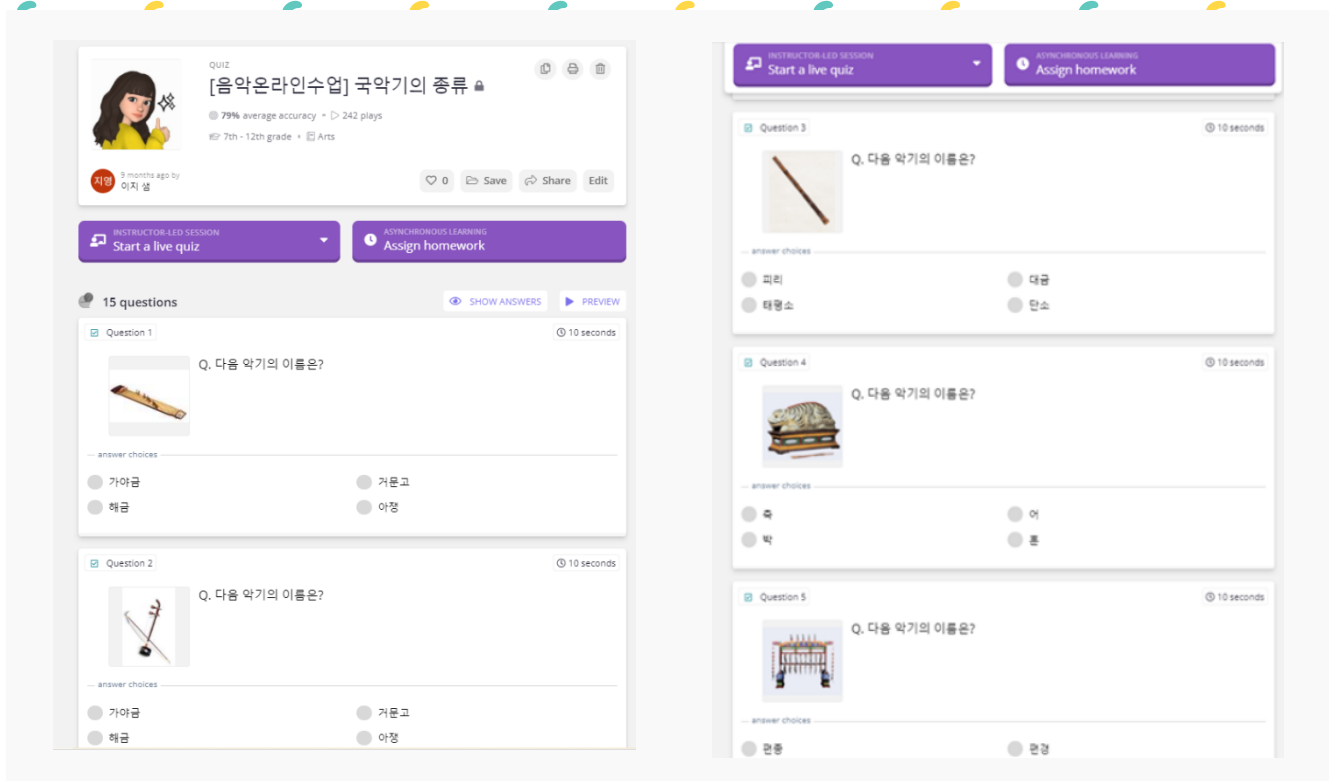
제작 순서

3) 문항 추가

- 문제를 만들고 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아래의 문항 유형을 클릭하면서 문제를 추가하면 된다. 오른쪽에 보면 공개 여부, 문항별 공통으로 주어질 시간 등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다.



- 완성 예)



5.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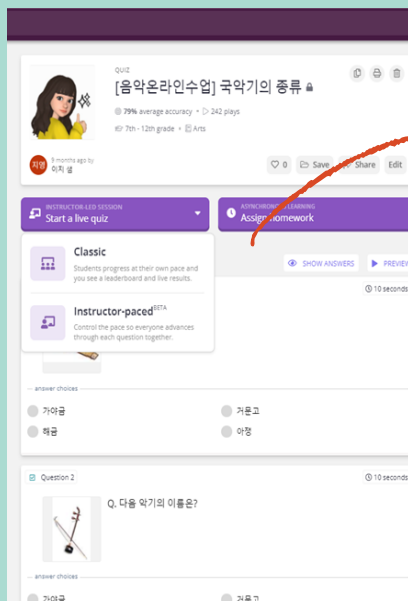
1) 교과

- 전시 학습 확인, 형성평가, 과제, 수행평가 대비 연습
- 말 그대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한번 제작하면 횟수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나는 주로 음표와 쉼표, 악기, 악상기호 등의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한 주제에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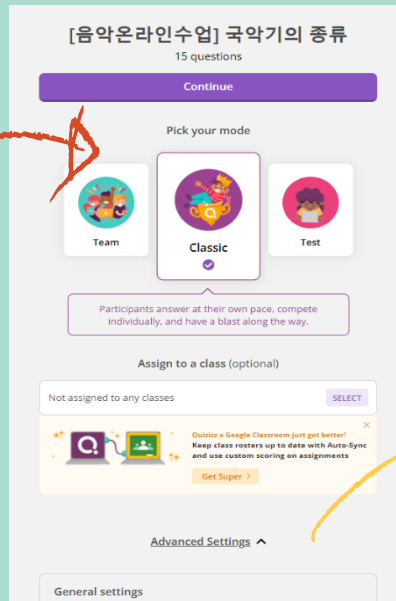
※ 전시 학습 확인 활용 예

- 원격 수업 시 교사가 채팅창이나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 링크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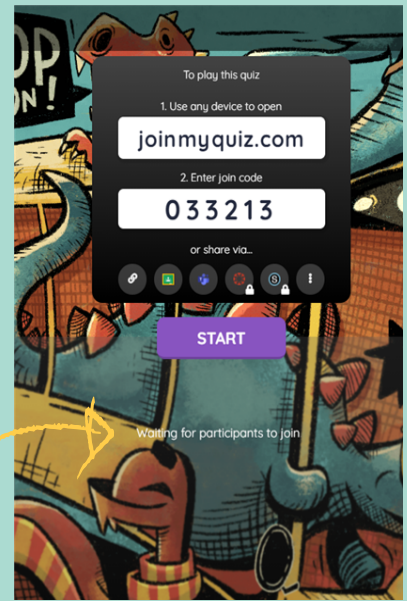
게임 진행 예시



Start a live quiz
⇒ Classic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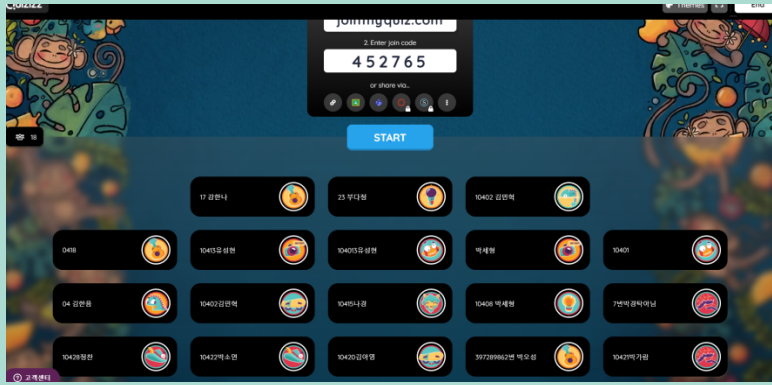
Continue 클릭
(화면 하단에서 게임 아이템
사용 등 다양한 설정 가능)



왼쪽 클립 아이콘을 클릭하면
게임 링크 주소가 복사.



링크 접속확인 후 게임 시작



학생 접속
화면



퀴즈화면



진행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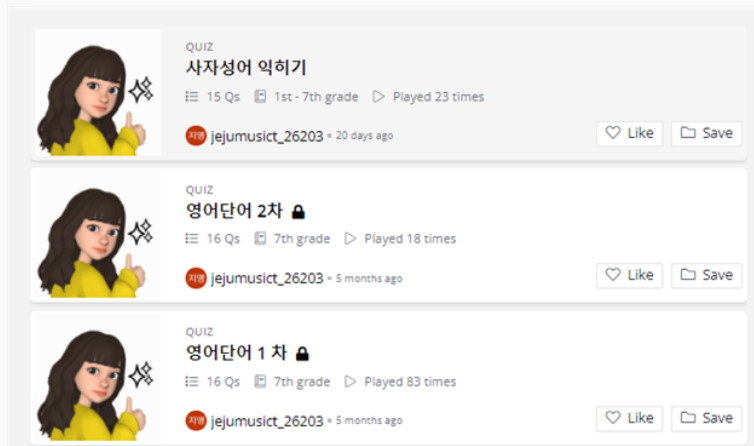


결과 화면

2) 출석 독려

- 원격수업 시 지각하는 학생 관리가 은근히 어려운데, 수업을 시작하고 출석 확인 후 2~3분 이내로 게임을 시작하면 제시간에 들어온 학생들이 막연히 기다릴 필요도 없고 교사는 그사이에 지각하는 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다.

3) 학급 관리



- 우리 반에서 잔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나는 타 교과 과제 및 쪽지 시험도 관리하곤 한다. 때문에 이런 것도 가끔 만들어 풀어보게 하는데, 다들 싫어하면서도 은근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작 과정이 매우 쉽기 때문! 우리 반 귀염둥이들이 제발 공부 좀 하길 바라는 담임샘은 한 번쯤 활용해 보시길 권한다.

6. 효과

꽤 좋다. 즐겁게 학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무엇보다 게임의 형식을 띠고 있어 배경이나 음악, 그리고 아이템 등 흥미를 끄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다. 가끔 사전에 퀴즈 예고를 한 후 마이쥬 하나를 상품으로 걸면... 게임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게 그렇게 흥미진진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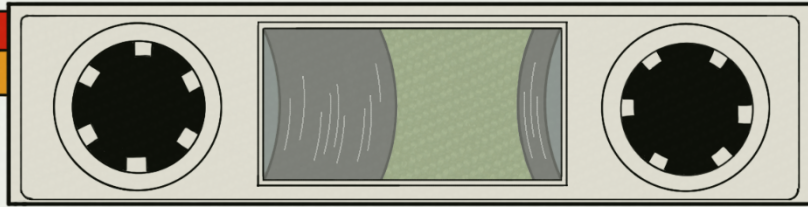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은 2차에 걸쳐서 하는데, 이전보다 많이 맞은 학생에게 칭찬의 보상만 있어도 정말 기뻐하고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칭찬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

7. 워드 코로나로 향하는 지금 Quizizz?

퀴즈는 과제로 제시할 수도 있으며, 대면 수업 때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하다. 원격수업만으로 한정하여 생각할 필요는 없다.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로 여러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번호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선생님, 남은 2021년도 파이팅입니다! ^^

대중음악사 Vol.2



미국의 국보 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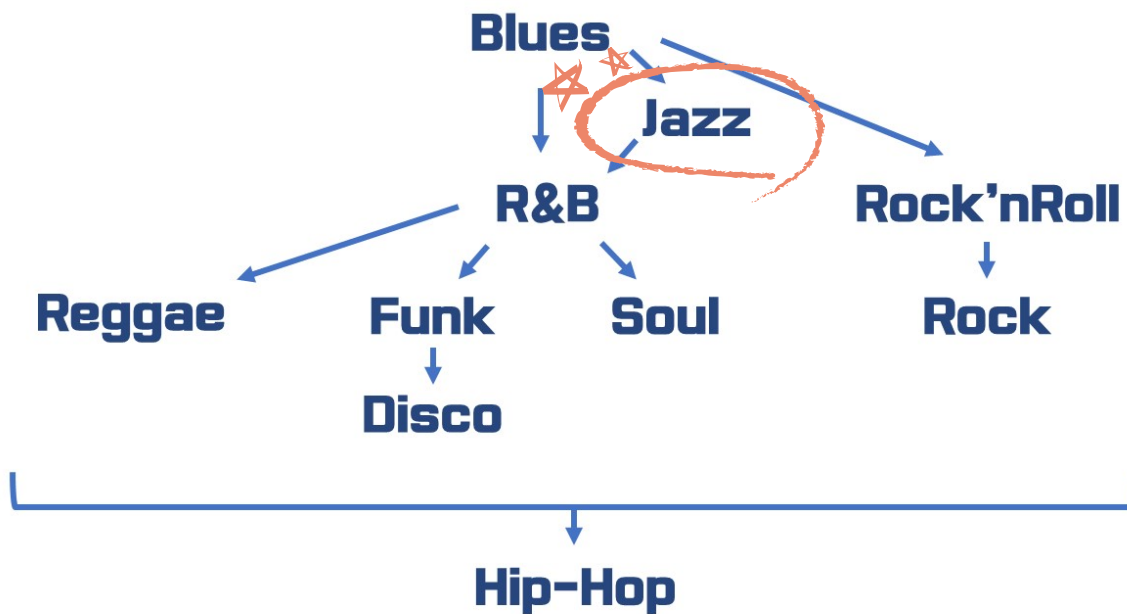
에디터. 전진우

재즈의 기원

1803년 미국은 프랑스의 식민지인 루이지애나를 1㎢당 단돈 7달러에 구매한다. 이는 단순한 영토확장으로서의 의의뿐 아니라 현재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만들어낸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 당시 프랑스는 루이지애나 판매 조건으로 크리올을 백인과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된 크리올들은 유럽의 음악 이론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흑인의 감성과 유럽 클래식 음악이 결합한 재즈가 탄생하였고, 이후 사회의 변화, 연주자들의 실험정신 등에 따라 여러 스타일로 변화하며 발전해나갔다.



서양음악과 흑인 감성의 결합이라는 점은 블루스와 같지만 블루스는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받지 못한 흑인들에 의해 탄생한 음악이라고, 재즈는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은 흑인들에 의해 탄생한 '보다 전문가적인' 음악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각 장르의 시발점에 대해서의 생각입니다. 절대로 블루스가 전문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타 음악 장르들과 비교하여 재즈는 그 음악적 특징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가 재즈를 '재즈스럽다' 또는 '재지하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들은 무엇이 있을까?

필자가 생각하기에 재즈는 음악의 일곱 가지 구성요소 중 '리듬', '화성', '형식' 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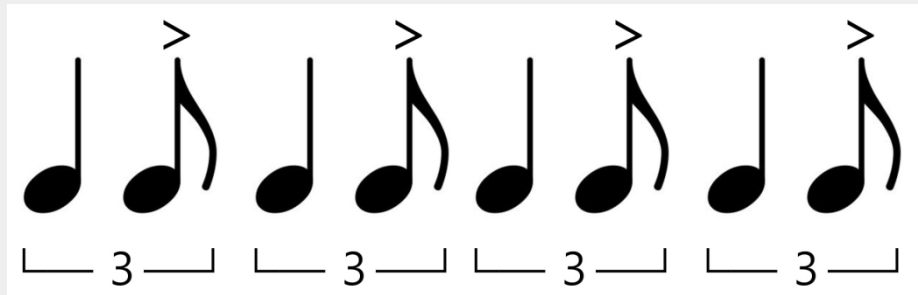
재즈의 음악적 특징1. 스윙 리듬

스윙은 경직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흔들거림을 유발하는 느낌이라고 한다.



정말 모호하고 추상적인 설명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스윙리듬은 일종의 바운스 리듬이다. 셋잇단음표에서 앞쪽을 길게, 뒤쪽을 짧게 분할하였다고 설명하면 되려나... 아래 그림을 참조하는 것이 이해에 더 빠를듯 하다.



▲ 스윙 리듬.

'엥 이거 셔플리듬이랑 비슷한거 아닌가...? '

스윙 리듬은 셔플과 마찬가지로 바운스 리듬을 골격으로 하지만 셔플은 셋잇단의 첫 박에 강세를, 스윙은 셋잇단의 마지막 박에 강세를 준다.(당김음) 그리고 연주자마다의 그 바운스의 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무엇보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며 이것이 소위 '스윙감' 이라 말하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스윙리듬은 정확한 삼연음이 아니라 주장하며 셋잇단음표로 표기하는데 반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연주자마다의 비율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스윙 리듬 역시 3연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셔플은 7:3으로, 스윙은 6:4로 분할한다는 식의 설명은 오히려 학습자들을 어렵게 만들것 같아요. (저는 비율보다 강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악보 첫 장에 swingly 라고 적어두는 것이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요?



재즈의 음악적 특징2 즉흥연주

(Medium Swing)	C-Jam Blues				Duke Ellington		
4 B ^b ₇		/		/		/	
E ^b ₇		/		B ^b ₇		/	
F ₇		/		B ^b ₇		/	

▲ C JAM BLUES의 리드시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즈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즉흥성 또는 자유로움이다. 재즈 연주자들은 코드만 적혀있는 리드시트를 두고 수 분 동안 자유롭게 다채롭게 연주하곤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음악적 규칙을 철저하게 체화하고 규율화 할수록 더욱 자유롭게 즉흥연주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기 위해 수많은 재즈 연주자들은 스케일, 릭, 리프 등의 음악적 '단어'들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다.

즉, 재즈의 즉흥연주는 '필연을 대립하지 않는 자유로움'이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스트링을 많이 사용하는 타 양상블과 다르게

재즈는 브라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군악대 즉 마칭밴드와 연관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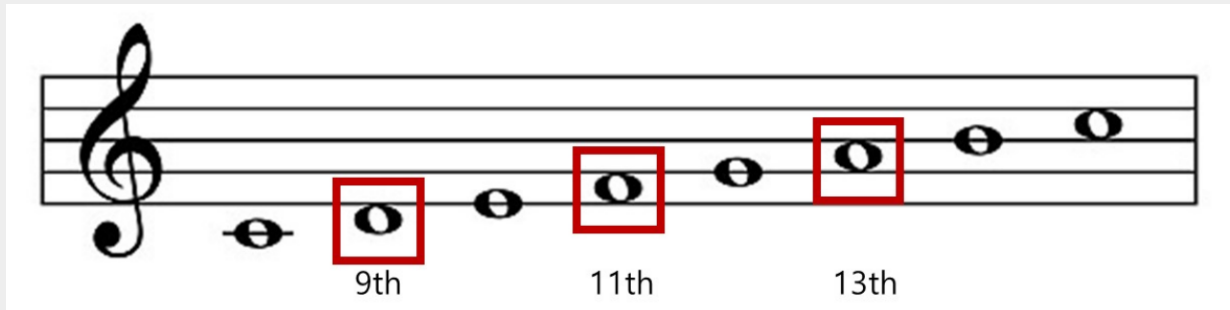
남북전쟁 이후 군인들이 많은 악기를 버리고 갔고, 이를 흑인들이 주워 연주하며 재즈가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악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 등의 브라스 편성이

재즈에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재즈의 음악적 특징3 텐션 노트



▲ 텐션노트

텐션노트는 근음으로부터 9음, 11음, 13음 등을 의미한다. 흔히들 화음에 긴장감(TENSION)을 불러일으키는 비화성음이라 텐션노트라고 말하나, 화음을 확장(exTENSION)하기에 텐션노트라는 의견도 있다.

텐션노트는 화음을 확장시켜 풍성함을 더해주는 반면, 소리의 충돌과 긴장으로 3화음이나 7화음의 소리를 희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모호함과 미묘함 덕분에 인상주의 작곡가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였는데, 재즈아티스트들 역시 이 텐션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일반적인 대중음악에서는 화음의 풍성함을 위해 계류 4음이나 7음을, 좀더 나아간다면 9음을 활용하지만 재즈에서는 9음, 11음, 13음 그리고 이 음들에 #과 b를 붙여 다양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선택지가 많은 만큼 재즈에서 코드 연주는 텐션노트를 적절하게 골라서 보이싱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텐션노트들은 화음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한 '어보이드 노트'가 있습니다. (물론 연주 의도에 따라 사용한다면 무방합니다.) '어보이드 노트 활용 공식'을 모두 외우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겐 한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9음이죠. 9음은 iii7을 제외한 모든 화음에 사용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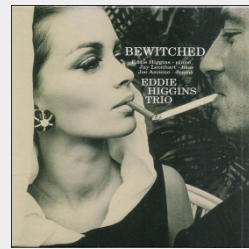
만약 학생들 앞에서 재지한 즉흥연주를 해야할 때가 생긴다면 대리화음에 9음을 추가한 왼손 반주, 스윙리듬의 멜로디 연주로 음악교사의 위엄을 보여주세요.

대표적인 음악가와 감상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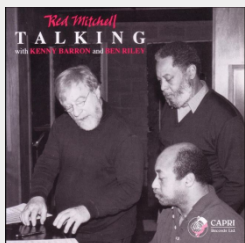
음악가 및 작품을 소개하기 전에 미리 스스로를 변호하자면, 위대한 족적을 남긴 아티스트 위주로 선곡할 것인가? 대중적인 곡으로 선곡할 것인가? 교과서에 주로 등장하는 곡들을 여러 버전으로 소개해야 할 것인가? 등 긴 시간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내 맘대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 내 플레이리스트 중 편하게 들을 만한 곡을 추려 소개해본다.



▲ 에디 히긴스 트리오의
〈Don't Smoke In Bed〉 중
'The Night Has A Thousand Eyes'.
에디 히긴스의 음반들은 대중성과 완성도가
높아 누가 들어도 만족하는 재즈를 들려준다.



▲ 역시 에디 히긴스 트리오의 〈Bewitched〉 중
'Autumn Leaves'. 다른 아티스트들의 쓸쓸한 가
솔과 감상맛은 그리움이 아니라 아름다웠던 추억
이 표현된다. 더불어 본 앨범은 한국인에게 친숙
한 재즈 스탠더드로 구성되어 재즈 입문자에게
매우 좋다.



▲ 레드 미첼 트리오의 〈Talking〉중
'The Purest Heart'.
더블베이스 연주가 리더로 발매한
흔치않은 음반이다.



▲ 찰리 파커의 'Blues For Alice'
찰리 파커의 대표적인 곡으로 웨스 몽고메리의
연주 버전도 추천한다.



▲ 미셸 페트루치아니의
〈Best of Dreyfus Jazz Recordings〉 중
'Take the A train'
역동적인 열차의 힘이 느껴지는 연주로
감상 후 기계문명을 동경하는 마음이 생긴다.



▲ 주앙 지우베르투의 'Chega de Saudade'
보사노바의 시작을 알린 곡. 이후 보사노바가
60년대의 미국 재즈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나니 슬픔은 그만(No More Blues)이라는
뜻의 제목은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참고해볼만한 영화와 수업에서의 활용1.



스윙걸즈 (2004)

감독 : 야구치 시노부

출연: 우에노 주리, 타케나카 나오토 등

〈스윙걸즈〉는 음악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던 여고생들이 우연히 스윙밴드에 들어가 우여곡절 끝에 공연까지 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일본 영화이다. 주인공들이 음악에 몰입하는 모습이 영화 내내 유쾌하고 사랑스럽게 표현되어 학생들과 함께 감상하기에 좋다.

특히 영화 중반부 주인공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스윙 리듬을 이해하는 장면은 학생들이 스윙 리듬을 익히는데 좋은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스윙리듬의 당김음을 익히는 주인공들.

참고해볼만한 영화와 수업에서의 활용2



위플래쉬 (2014)

감독 :데미언 셔젤

출연: 마일즈 텔러, J.K.시몬스 등

〈위플래쉬〉는 명문 음대에 입학한 드러머가 폭력적인 교수를 만나 변화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로 음악, 편집, 연기, 연출 등 흠 잡을데 없는 영화이다. 특히 마지막 ‘Caravan’을 연주하는 장면은 모든 학생들이 숨죽이고 집중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

영화를 보고 난 후 '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무관한 것인가?', '주인공은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한 것일까? 아니면 순

수함을 잃고 인간성이 파괴된 것일까?', '예술은 즐기는 것인가? 아니면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 내야 하는 것인가?' 등의 질문과 산파술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다.

다만 주인공 플레처교수의 언행이 심히 폭력적이라 보는 이에 따라서는 매우 불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튜브의 요약 영상과 마지막 연주 장면만 학생들에게 제공한 후 학생들에게 상기한 질문을 하면 될 것이다.



한계를 극복한 천재의 탄생일까, 광기에 물들어 인간성을 상실한 것일까?

알고보면 쓸모있는 쪼꼬미들

알쓸쪼

밴드부터 오케스트라까지 경험자들이 말해주는 꿀팁, 꿀정보 대방출
이 간단한걸 여지껏 몰라서 품의 올리고, 수리 보내고, 힘들었던 나날들...
이젠 달라진다!



밴드부 전진우 선생님



기타 스트랩 락 10pcs(다섯대 분) 약 2,000원

기타 스트랩을 사용하다 보면 가죽이 늘어나 스트랩 핀에서 자주 빠진다. 이때 아이들이 악기를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기타가 자유낙하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스트랩 락은 필수이다. 기타 스트랩을 연결한 뒤 단단한 고무나 금속으로 한 번 더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좋은 제품으로 구매할 필요 없다.



통기타 새들 & 너트 각 800원

너트나 새들은 소모품이라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다 보면 줄의 장력으로 인해 깨지게 된다. 이를 수리하려고 악기상에 방문하거나 출장을 부른다면 상당한 가격이 소모된다.

직접 너트와 새들을 구매해서 교체하자. 간단하게 사포질과 본드 칠만 하면 된다.

Guitar Tab Player (Android) 무료



Guitar Tab Player

tower120 음악/오디오

전체이용가

광고 포함

내 모든 기기에서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가족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족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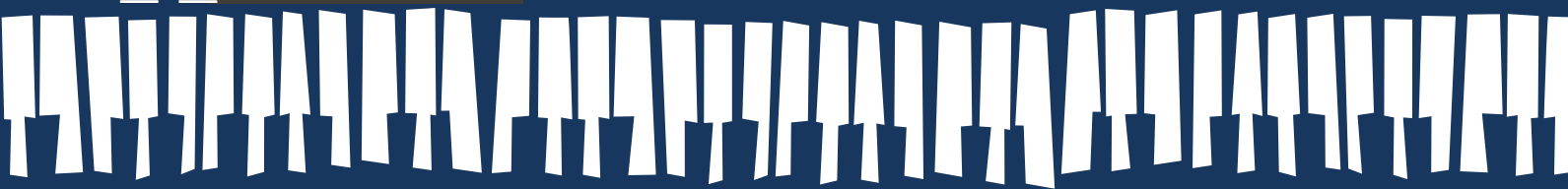
세인 알아보기

원시리스트에 추가

밴드부를 운영하다 보면 악보 제작, 편곡 등을 위해 기타 프로를 활용하게 된다.

Guitar Tab Player는 기타 프로로 제작한 GP 파일을 핸드폰에서도 재생할 수 있는 앱이다. 배속 조절과 음높이 조절이 가능하다. 가장 유용한 것은 각 악기의 트랙별 재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학생들이 개인 연습을 할 때 MR처럼 활용 가능하다.

IOS의 경우 <Mulody>라는 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관악오케스트라 이지쌤



아기 거즈 손수건 약 500원

플루트용 침수건은 꼭 필요한 소모품인데요. 보통 2천 원 정도에 판매하는 악기사 제품은 내구성이 약한 편이라 얼마 가지 못해 울이 다 풀리고 수명을 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하는 대체품은 아기 거즈 손수건!! 아기 거즈 손수건으로 검색하면 장당 500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고 아기가 쓰는 물건이라 부드럽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내구성과 귀여운 디자인은 덤!



△ 악기 매트 쿠션 디스플레이어 정품



△ 다이소 마우스 장패드

다이소 마우스 장패드 5,000원

악기 매트 쿠션 디스플레이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악기를 올려두기 좋은 부드럽고 폭신한 매트입니다. 없어도 상관없지만 키가 많은 목관악기를 거치대 아닌 책상처럼 딱딱한 곳에 올려놓을 때 있으면 좋은 물건이에요. 악기사나 악기사 쇼핑몰에서 구입하려면 몇 만 원이 넘어서 구입할 엄두가 나질 않았었는데, 우연히 발견한 대체품이 있었으니 다이소 마우스 장패드입니다. 학생들이 관악실 컴퓨터 장패드에 악기를 자꾸 올려놓는 것을 보고 얻은 팁입니다. 단돈 5천 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물론 용도가 다른 제품인 만큼 퀄리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석 볼펜 1,000원 부터 다양한 가격, (사진 속 제품은 5종 9,600원)

삼색 펜과 연필을 열심히 구비해두어도 하나, 둘 사라지고 마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관악 부실. 이때 자석 볼펜을 보면대에 붙여주면 선생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디자인에 따라 천 원부터 다양하게 있어서 기호에 맞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현악오케스트라 정선쌤

파버카스텔 연필 캡 개당 900원

합주를 하면 아이들에게 지도사항을 꼭 적으라고 해야 한다. 강사 선생님 혹은 담당 선생님이 적어준 활표시, 손가락 번호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지우개가 있으면 좋다. 파버카스텔 연필 캡은 연필 캡 형태로 만들어진 지우개라 연필심도 보호해 주고, 악기 통에 넣어놔도 흑연 때문에 악기가 훼손될 일이 없다. 파버카스텔 지우개가 가장 잘 지워지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선물하면 매우 큰 동기유발도 된다는 사실!



킹 클라베스 약 50,000원



합주할 때 목소리가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다. 매번 지휘봉을 내리치며 박을 카운팅 할 때, 어느새 지휘봉 끝이 너털거리면 마음도 찢어진다. 손바닥도 아프고, 장구 궁채로 내리치면 의자나 피아노 등이 자욱이 남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때 간단한 민속악기인 클라베스 또는 귀로를 사용해 보길 추천한다. 가격도 싼 것은 5천 원 대부터 비싼 건 10만 원이 넘어가지만 대략 1~2만 원 선이면 아주 크고 가벼운 리듬 스틱을 구할 수 있다. 박을 맞출 때 사용하면 생각보다 레슨, 합주할 때 용이하다. 특히 조금 더 비싸지만 킹 클라베스 추천

현악기 음계 스티커 약 3,000원

바이올린 포지션 스티커, 지판 연습 스티커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그냥 작은 스티커를 지판 포지션 위에 붙여줬는데 요즘에는 통으로 되어 있는 스티커도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 번 시간 내서 붙여두면 오래오래 도움 되는 공식 효자템.



칼림바 수업 노혜원 선생님

손가락 피크, 손가락 골무 1,000~2,000원

칼림바를 연주하다 보면 유독 손톱이 약한 학생도 있고,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는 학생도 있다. 이럴 때 손가락 골무나 손가락 피크를 사용하면 덜 아프다. 불편한 느낌이 있지만 연습을 하여 손가락 피크나 골무에 익숙해진다면 손톱이 아픈 학생들에게는 도움을 준다.



▽ 칼림바 보관 케이스 10,000원 & 북 스탠드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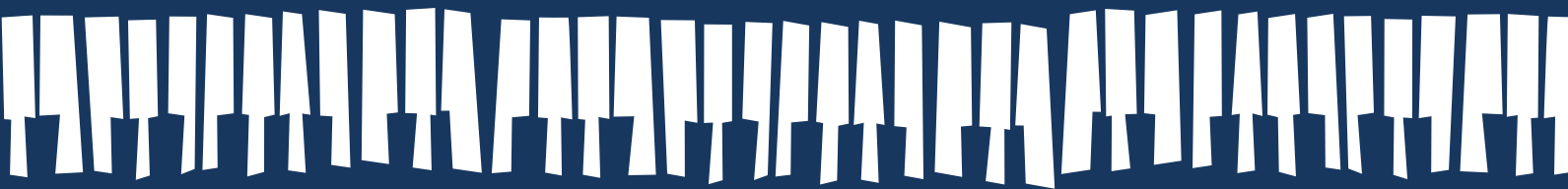


칼림바를 구입할 때 케이스를 포함하여 구입하는 것이 좋다. 보관하기도 좋고 나무로 된 칼림바를 충격에서 보호할 수 있다. 케이스 안에 조울 망치를 포함한 케이스를 추천한다. 또한, 학생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칼림바를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악보가 책상 위에 있기 때문에 악보를 보기 위하여 고개를 푹 숙이고 연주하게 된다. 칼림바 수업을 준비할 때 칼림바 악보를 세워 둘 수 있는 북 스탠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면 고개 들고 연주하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칼림바 키바 스티커 1,000원

칼림바 수업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면 1위로 칼림바 스티커 구입을 추천한다. 악기의 영어 이름과 숫자가 키바에 각인이 되어 나오기는 하지만 지문이 묻거나 흐릿하여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명한 칼림바 스티커를 구입하여 칼림바 연주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시중에 다양한 디자인의 칼림바 스티커가 나와 있으니 취향에 따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요즈음은 키바 스티커, 칼림바 체인, 칼림바 꾸미기 재료(스티커, 모양)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니 나만의 칼림바 만들기에 활용하여도 좋다.



DAW 란?



♥ 1,000 LIKE

오늘 작업한 나의 미디어음악.

음악프로그램

#미디어작곡

#쇼미더머니

누구나빈지노

#비트메이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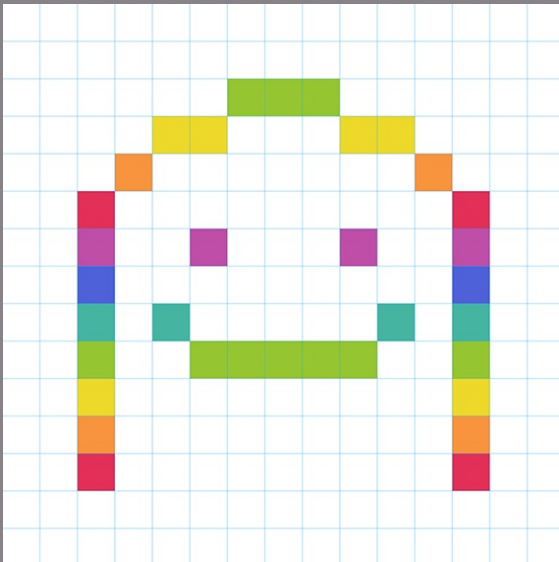
누구나 창작욕구는 있다. 최근 쇼미더머니 10 시즌이 다시 시작되면서 힙합, 미디, 비트메이킹에 대한 관심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다시 크게 증가되고 있다. 음악교사로서 이런 10대들의 요구를 무시할 것인가? 비트를 드롭하고 미디어음악을 좀 맛보며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떨까? 이러한 갈증의 해답. 바로 DAW 이다. 이번 기사에서 DAW를 소개하고,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DAW를 소개하기로 했다.

에디터 홍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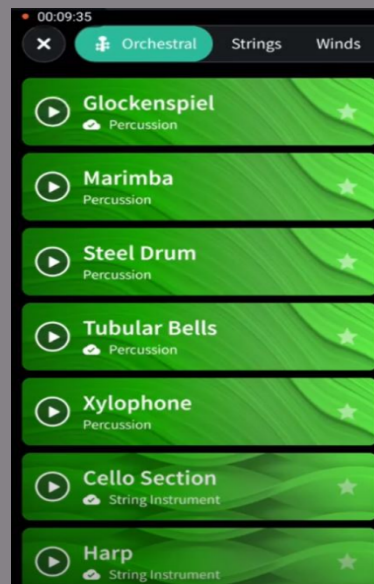
DAW란?

디지털오디오워크스테이션의 줄임말

코로나 19 사태가 연장되면서 대면으로 가능한 활동 영역이 줄어든 상태. 온라인 수업의 최대 큰 단점은 학생들이 주도하여 수업 속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점이다.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조차, 공유된 수업자료를 토대로 전통적인 강의 방식의 음악 수업은 수업의 질이 매우 좋아도 학생들의 집중력을 이끌어내기란 상당히 힘든 법이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교차하며 블렌디드 수업 형태에서는 직접적인 음악활동을 변화무쌍하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최근 음악수업에서 활발히 사용되거나, 뜨고있는 대표적인 DAW 프로그램 두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구글 뮤직랩 송메이커



DAW 대표프로그램
: 밴드랩

1.송메이커

제일 많이 활용되는 프로그램은 오픈소스 기반형의 <SONG MAKER> 프로그램이다. 멜로디, 화음, 비트 등을 간단히 구현할 수 있으며, 5~6가지의 음색또한 변형 가능하다. 무엇보다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여 온라인에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효율적으로 하고 흥미를 이끌 수 있다. 대부분 음악을 카피하거나 창작하는 활동에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 단점이기도 하다. 강렬한 흥미와 호기심을 보이는 학생에게 자신의 창작을 구현하기에는 소스들이 매우 단순하며, 무엇보다 16BAR(마디개념과 비슷)까지만에 만들 수 없어, 긴 곡을 만들때에는 몇 개를 따로 만들어 편집 프로그램으로 붙여서 완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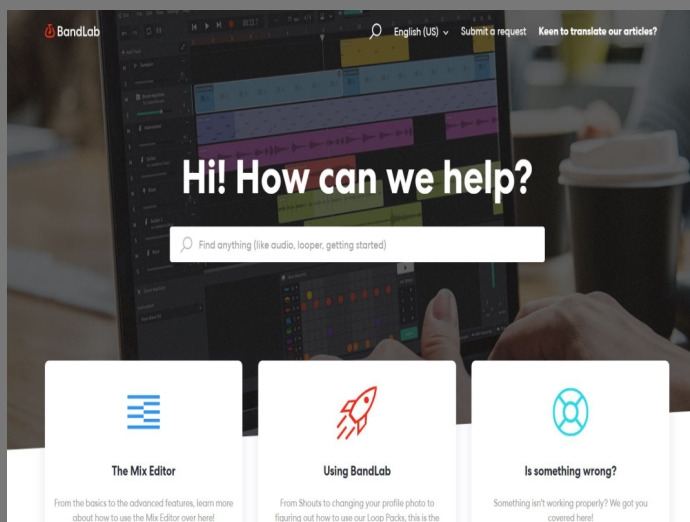


2.밴드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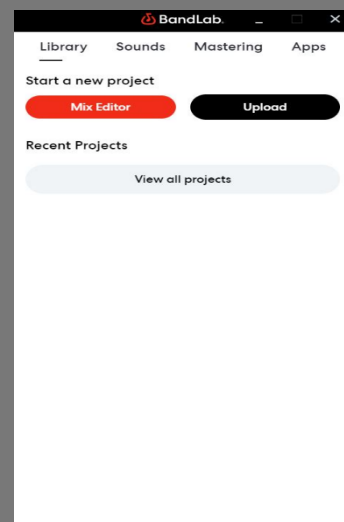
밴드랩 프로그램은 구글뮤직랩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디프로그램 업체로 유명한 Cakewalk사가 흡수되면서 전면 무료화 선언을 하여 많은 창작자들에게 창작을 맘껏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밴드랩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웹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한민국 공교육 안에서의 음악교육으로 적용할 때 지도상의 용이점이 매우 크다 하겠다.

송메이커처럼 직관적으로 미디를 제작할 수 있지 않지만 긴음악을 만들스도 있고 다양한 루프 팩, 가상악기의 보유로 어느정도 만족할 만한 음악을 만들수 있다.

. 단 심취한 사람에게는 유료 가상악기 및 악기 팩을 사게끔 만드는 점이 아쉽다



밴드랩 PC버전 홈화면



밴드랩 모바일버전
홈화면

수업 중



밴드랩 활용방법

적은 수업시수에 모든 기능을 익히고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
감상

홈 화면에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자유로운 음악을 감상하며 미디 제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
카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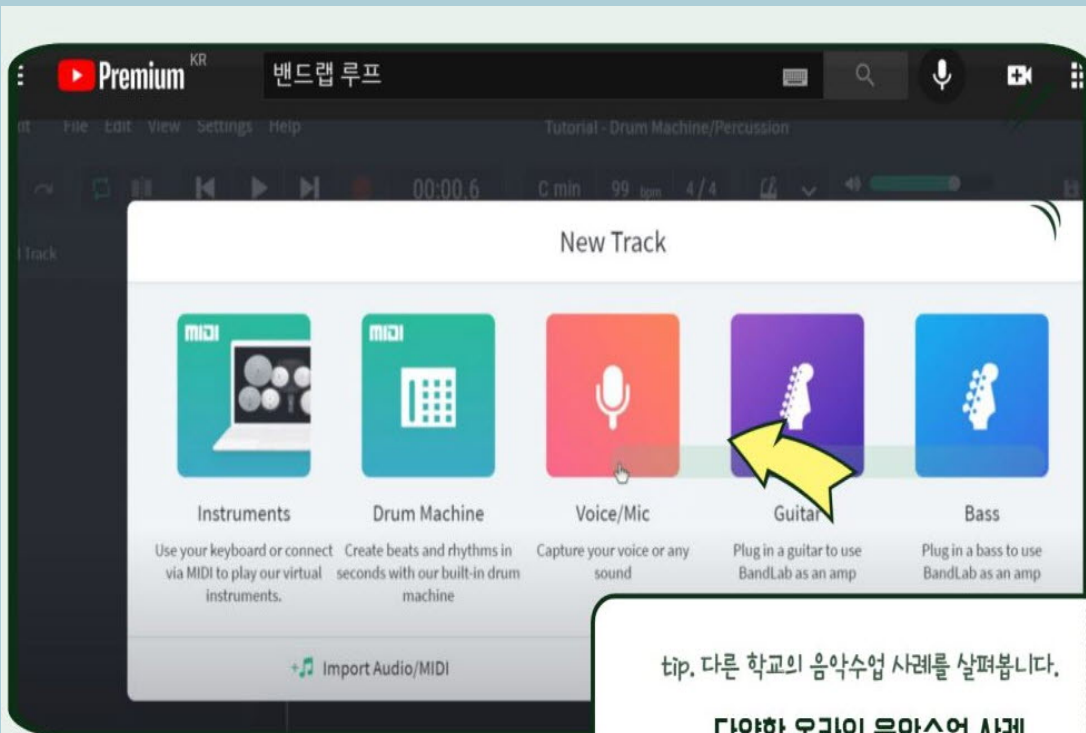
유명한 아티스트의 곡(BTS/창모 등)을 지정하여 카피 실습해 보기

✓
창작

음악의 기본 요소를 알려준 후, 학생주도적인 창작활동하기 (비트메이킹/BGM 만들기)



DAW를 수업에 적용하려면 먼저, 기본적인 기능을 익힌 후, 활동의 갈래에 따라 기획하는 교사 수업 리디자인 역량이 중요합니다!



tip. 다른 학교의 음악수업 사례를 살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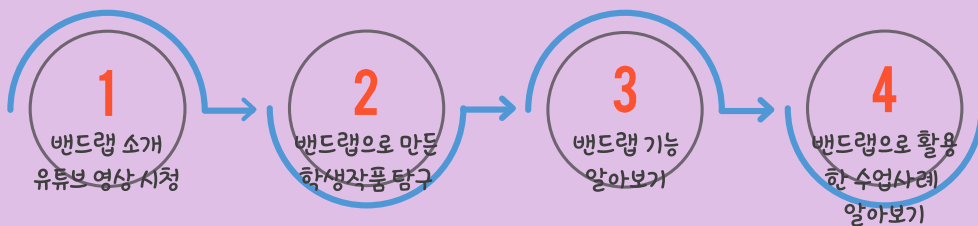
다양한 온라인 음악수업 사례

3.수업에서의 활용방안

인터넷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현재까지 밴드랩 수업 적용에 대한 글은 많이 않은 실정이다. 유튜브 채널에서 약간의 사례와 수업 적용 방법을 볼 수 있는데, 한가지 tip이 있다면,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음악교사가 속한 학교의 평가계획을 찾아보는 것이다.

<학교알리미> 서비스를 활용하면 각급 학교의 평가계획이 공개되어 있어, 해당 자료를 열람하며 자신의 밴드랩 음악수업을 구상하는 처음 시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자료는 해당 학교 음악교사가 갖은 고생과 연구, 고민 끝에 만든 평가계획이요, 자료이니 무단 변형 및 복제는 하지 않아야 한다.

수업연구루틴제안



두려움이 너무 큰 교사는 약 1학기(6개월) 정도를 밴드랩 연구기간으로 설정하여 차근차근 배우기를 권한다. 위와같은 루틴으로 학습하면 막연한 두려움은 걷힐 것이다. 밴드랩을 배우기에 앞서, 먼저 구글뮤직랩을 습득하고 수업에 적용하기를 권한다. 간단한 창작프로그램을 조작하며 미디어음악의 플랫폼을 간단하게나마 익힐 수 있다.

BOX

오피스

자판기

품명	
수량	
제조원	

골판지 박스로
악기 만들기부터 STEAM교육까지

에디터. 전진우

들어가며

비말감염의 우려로 리코더 오카리나 단소 등의 악기연주가 불가능하게 된 지 두 해째이다. 가창 수업은 마스크를 착용하고서라도 어렵게나마 진행할 수 있었지만 기악 수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칼림바, 북웨커 등을 활용한 기악활동을 진행하였을 것이고, 새로운 기악활동을 찾아해메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비말감염 위험이 없는 활동을 고민하였고 결국 리듬 활동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양한 리듬꼴 학습을 위해 활용 가능한 기악활동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사물놀이였으나 자유학기 예술활동에서 체험한 학생들이 많으므로 기각. 내가 작년에 열심히 연습했던 쥘베는? 예산 부족으로 기각. 그렇다면 펜비트는? 대다수의 남학생이 나보다도 훨씬 잘 하기에 수업참여도가 저조할 것이므로 기각.

이미 학생들에게는 리듬활동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물러날 수 없었다. 아득해진 정신으로 인터넷에 ‘DIY PERCUSSION’을 검색해보았더니 가내수공업으로 완성한 카혼 제작영상이 여러 개 나타났다. 난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스무 개 이상을 제작해야했기에 목재로 제작하는 것은 시간도 예산도 의지도 부족했다. 고민 끝에 선택한 재료는 골판지박스였다.

페루의 전통악기 카혼



카혼은 스페인어로 ‘상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스페인의 페루 식민 지배 당시 일어난 문화말살정책의 돌파구로 발생한 악기입니다.

빠앗긴 타악기를 대신하여 굴러다니는 나무상자를 연주하였고, 이것이 점차 개량되어 나일론줄 또는 스네어와이어 등이 부착된 현대의 카혼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래에서 알 수 있듯 태생부터 간단한 구조이기에 직접 만들어 수업에 활용하기 적절하죠.

순한맛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간단 버전

Ver.1



IK*A에서 구매한 박스와 철사의 조합.
철사를 부착해보니 찰랑거리는 금속의 울림이 거의 없었다. 스네어와이어처럼 철사를 구부려 부착해보았더니 한결 나아진 소리가 났으나 여전히 시원치 않았다. 철사는 재료 자체가 탄성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Ver.2



IK*A 박스 + 볼펜 스프링의 조합
구조는 상동. 볼펜의 스프링을 뽑아 길게 늘려 다섯가닥 정도 부착해 보았다.
상당히 만족스런 소리가 났다.

Ver.3

IK*A 박스 + 기타줄의 조합

역시 구조는 상동.

본래 카혼이 보통의 나무상자에 기타줄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개량되었기에 끊어진 기타줄도 활용해보았다. 가장 실제 카혼과 흡사한 소리가 났다.



굴러다니는 볼펜의 스프링과 기타줄 등을 활용하여 스물 다섯개 가량을 만들었고,
학생들과 즐겁게 리듬수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음악교육계의 집착남 전진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작업량은 많지만
그럴듯한 버전



처음 약기에 호기심을 가졌던 학생들이 3차시에 이르러 급격히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다리 사이에 끼워 연주하는 현재의 형태가 불편하다는 점, 실제 카혼과 외형이 다르다보니 학생들의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 흥미 감소의 주 원인인 듯 하였다. 그래서 이젠 학생들이 실제로 앉을 수 있는 골판지 카혼을 만들어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골판지 박스의 종류

골판지 박스는 A골, B골, C골, E골 등의 양면골판지(SW)와 AB, BB, EB 등의 이중양면골판지(DW)가 일반적으로 판매됩니다.

더불어 사용되는 종이는 SK지, WT지, KLB지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택배박스에 사용되는 것은 SK지입니다.



▲ A골

▲ B골

▲ C골

▲ E골

Ver.4



井 모양의 골조를 제단하여 체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내부 공명공간을 1/3밖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 기대보다 내구성이 약하다는 점, 결정적으로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양산이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였다.

Ver.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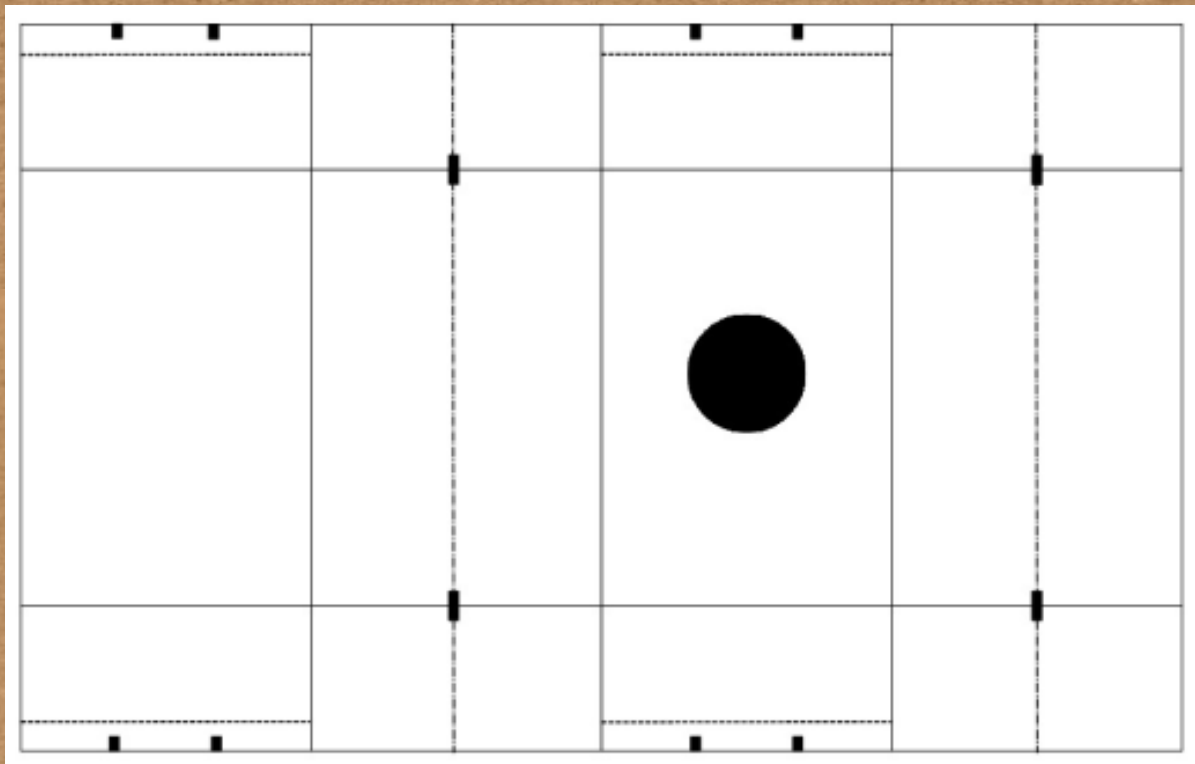
동교 수학선생님의 자문을 받아 둔각 이등변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구하여 >< 모양의 골조를 재단, 내부를 모래시계형태로 만들었다. 이전보다 공명공간도 2배가량 늘어났다. 내구성은 그리 나쁘진 않았지만 내 기대보다 작업량이 많아 다시 한번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였다.



골판지 박스의 선택

AB골, KLB지로 제작된 골판지박스를 이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체중을 지탱하는데 안전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카흔과 비슷한 300*300*450 사이즈의 기성품은 SK지 A골의 제품 말고는 못찾겠더군요. 물론 주문 제작을 하면 되지만 견적 문의 결과 최소 주문수량이 300장이라서 결국 전 SK지, A골의 기성품을 주문했습니다. 주변에 친한 음악 선생님들이 많다면 주문제작을 하세요.

Ver.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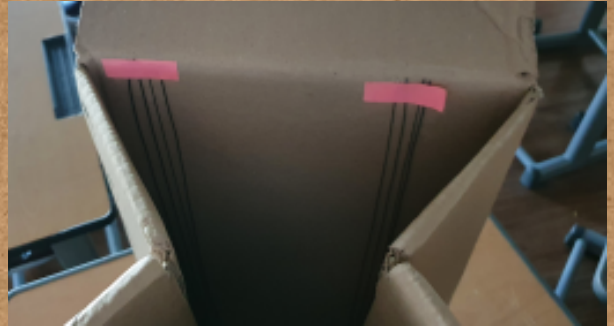


▲ 제작에 사용된 도안

재단작업이 적다면 박스에 데미지를 적게 줄 것이고, 이는 곧 악기의 내구성과 제작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다시 고민한 결과 골조가 따로 필요 없는 일체형으로 제작하면 되겠다는 답을 찾았다. 이 당시에는 자화자찬하며 사업화까지 생각했으나 추후 이미 동일한 형태로 상용화된 카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금 세상은 넓고 똑똑한 사람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Ver.7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알았으나 예상과 다르게 금속의 울림이 들리지 않았다. 여러모로 시도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였다. 그러나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하였다. 기존 전면부에 가로로 부착하였던 와이어를 세로로 길게 부착하면 되는 것이었다.



다만 남는 기타줄이 더 이상 없었고 스프링은 충분히 늘어나지 않았다. 고육지책으로 우쿨렐레줄을 이용하였는데, 유레카! 지금까지 제작했던 것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이전처럼 남는 기타줄이나 우쿨렐레줄도 없을뿐더러 사용되는 양도 늘어나 개당 제작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Ver.8



▲ 스네피or 스네어와이어. 스네어드럼 아래 붙어 있는 바로 그 철사이다. 글루건과 청테이프로 고정.

국내에서 스네피를 저렴하게 구매한다고 한들 개당 15,000원가량을 지불해야 하기에 스네피는 처음부터 선택지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Al*Ex***s에서 검색해보니 개당 0.89달러에 구매할 수 있었다.

"이건 못참지!"

스네피를 반으로 절단하여 부착해보니 작업량은 극도로 줄어들었다. 박스를 도안에 맞게 접은 후 스네피만 부착하면 끝나는 것이다.



72Kg인 내가 앉아도 충분히 안정적이었다.

최종적으로 위 방법으로 양산하였고, 무사히 수행평가까지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음악교육계의 집착남 전진우는 여전히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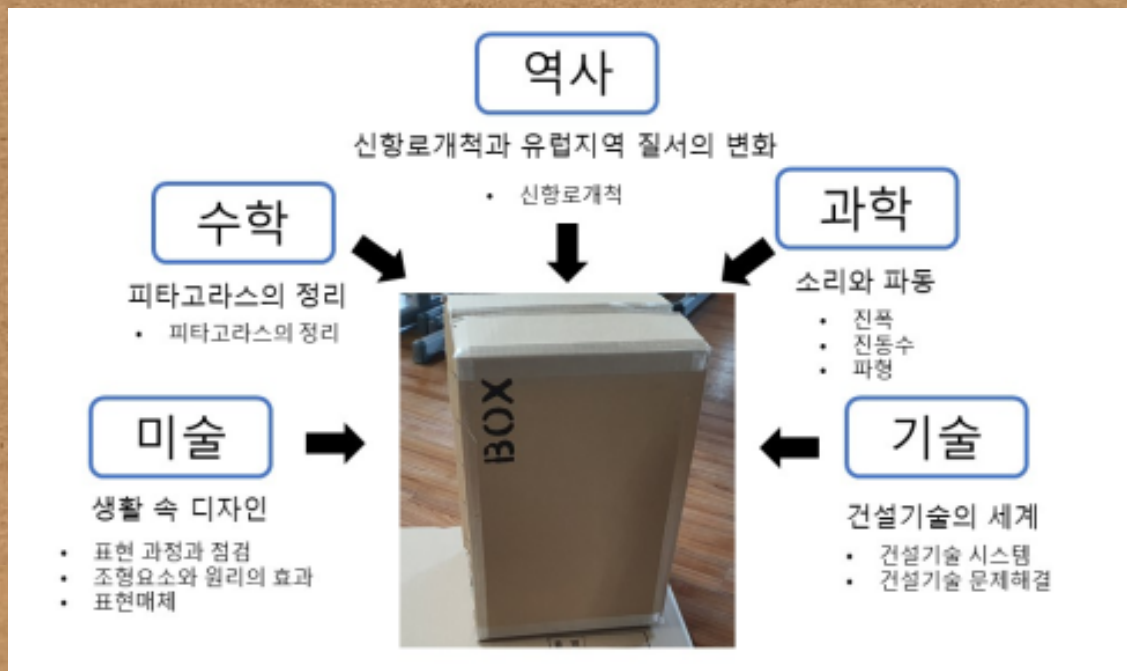
Ver.9

Ver.7의 만족스런 소리를 가격 때문에 포기하고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는 것이 아쉬웠다. 스네퍼 직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란 생각이 들어 접근성이 높고 저렴한 재료로 마지막 제작을 해보고자 마음먹었다. 재료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떠오른 것은 바로 낚시줄. 그렇지 낚시줄도 나일론이지!! 인터넷을 통해 18호 100M를 단돈 900원에 구매하였다. 제작시간은 오래 걸렸으나 최저가 제작에 의의를 뒀으니 개의치 않았다. 개당 재료비는 1,000원 이하!!



마무리

이번 프로젝트는 동교의 선생님들께 많은 자문을 구하며 진행하였는데, 살면서 쓸 일이 없을 것 같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삼각비, 트러스구조, 응력 등을 다시 공부하고 적용해보며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뜬소리처럼 느껴진 STEAM교육이 구체적으로 그려졌다.



여러가지 융합교육의 유형 중 '카혼 제작'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다학문적 통합이 가장 적합하였다. 구체적으로 신항로 개척과 카혼의 유래, 전개도를 만들기 위한 삼각비 구하기, 나만의 카혼 꾸미기 등 여러 교과와 도움을 받아 악기를 제작한 후 제작된 악기를 음악시간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다.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장난이 심한 녀석들은 일부러 카혼을 망가트리기도 하였다. 제작을 위해 꽤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던 터라 무척 속이 상하고 학생들이 미워지기까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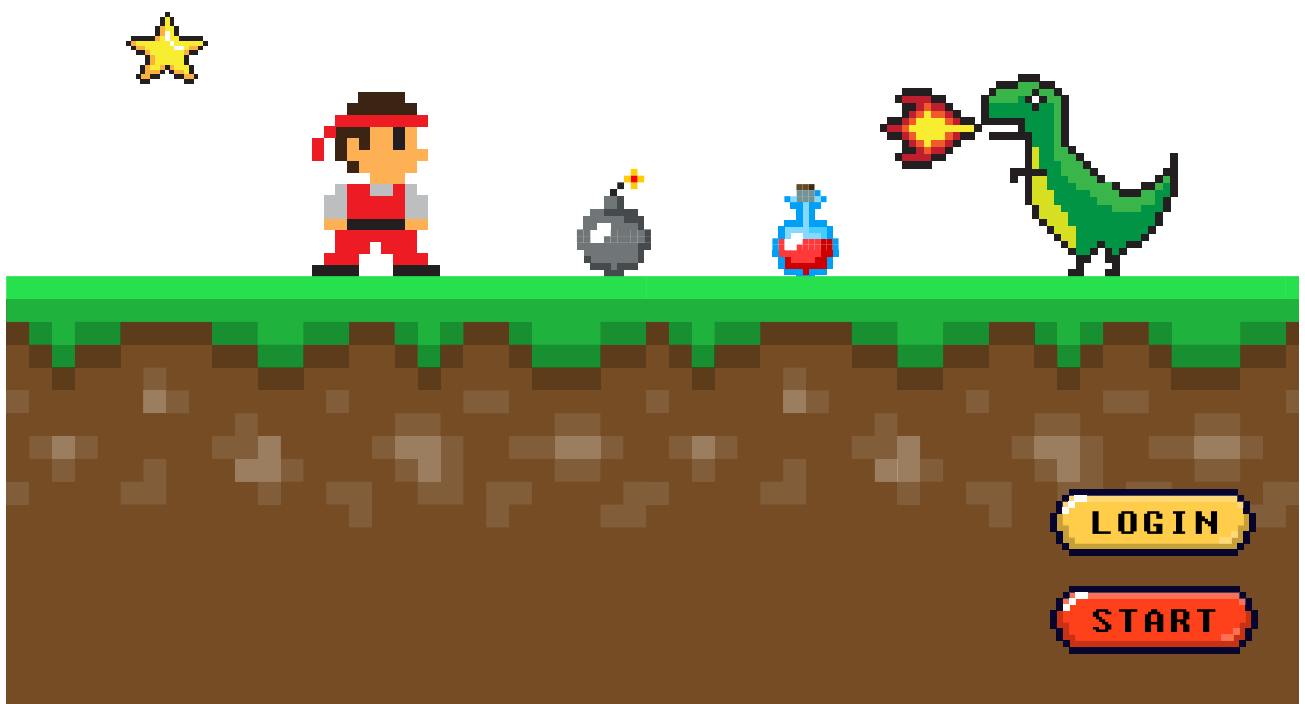
이 후 자유학기 우쿨렐레 수업을 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한 학생이 친구의 우쿨렐레 연주에 맞춰 8비트 리듬을 연주하며 즉흥 합주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가르친 내용이 학생의 삶과 하나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이었다. 속상했던 마음은 사그라들고 다시금 제작 의욕이 샘솟았다. 이 순간들이 우리 음악교사들로 하여금 꾸준히 수업을 연구하게 만드는 원동력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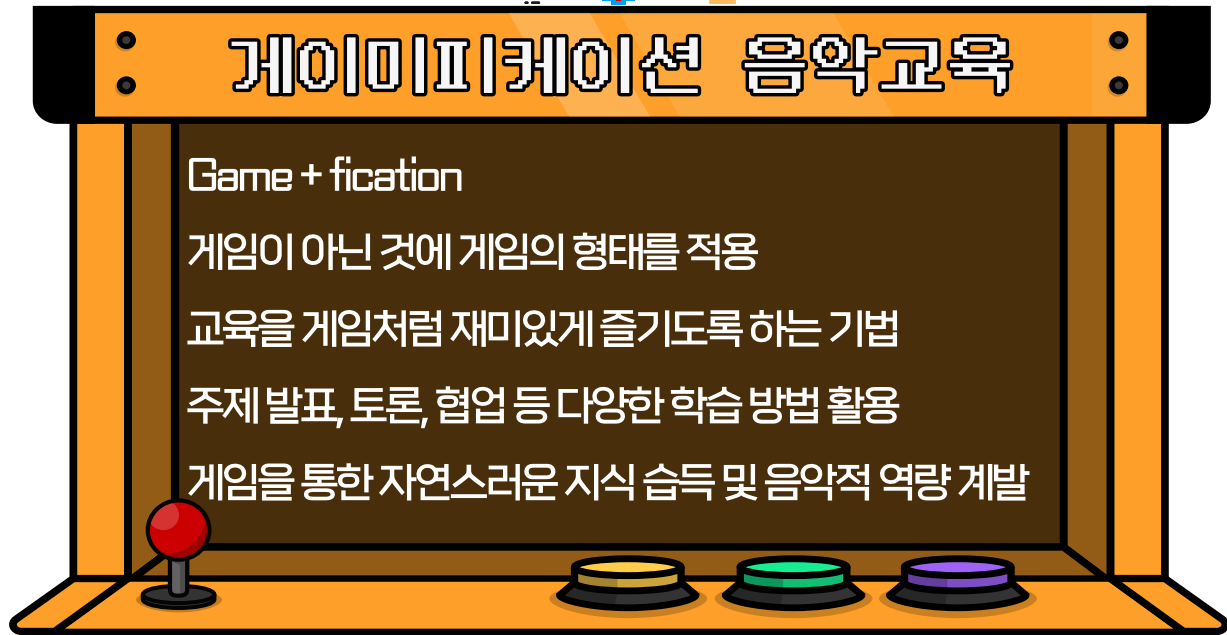


애들아! 놀면서 배우자

게이미피케이션 음악교육

에디터. 열매쌤





: 게이미피케이션 음악교육 :

Game + fication

게이미아닌 것에 게임의 형태를 적용

교육을 게임처럼 재미있게 즐기도록 하는 기법

주제 발표, 토론, 협업 등 다양한 학습 방법 활용

게임을 통한 자연스러운 지식 습득 및 음악적 역량 계발



선생님들,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은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외에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숨바꼭질, 딱지치기' 등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많이 즐겨 하던
놀이도 포함됩니다.

요즘 핫한 예능들 '신서유기, 런닝맨' 등
게임을 모티브로 한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인기가 많은 걸 보면
남녀노소 누구나 게임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학습 요소에
게임의 흥미로움과 성취감, 협동심 등의 장점만을 녹여
게이미피케이션 음악수업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게이미피케이션 음악수업을
소개합니다!



게임개요

- 보드게임 할리갈리의 규칙을 음악교육에 적용한 게이미피케이션 수업
- 다양한 주제 = 음표, 쉼표, 악기론 등을 학습한 이후 형성평가 형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복습하는 게임 수업
- 돌아가며 카드를 뒤집고 미션(예를 들어 4박자, 목관악기군 등)이 완성이 될 때 제일 빠르게 종을 치는 사람이 카드를 가져가는 일종의 스피드 종 치기 게임

게임 소개
영상 QR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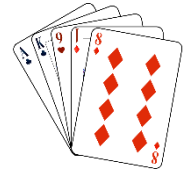
준비물

- 콜벨(종)
- 음표 카드
- 악기 카드



기대 효과

- 음표, 쉼표 등 리듬 계산 능력 향상
- 음악 이론 형성평가 역할
- 다양한 주제(악기론, 코드)로 활용 가능



게임 진행

1. 3~4명으로 구성된 모둠을 만들어 1인당 최소 12장~15장씩의 카드를 나눠준다.
2. 순서대로 카드를 뒤집고 미션이 완성될 때 제일 빠르게 종을 치는 사람이 카드를 가져간다.
3. 제일 많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 카드가 제일 먼저 소진되는 사람이 패하는 게임이다.
4. 모둠원끼리 개인전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에는 모둠에서 대표를 뽑아 팀 대항전으로 하는 걸 추천.

생기부 기재 예시

- 제시된 박자표를 완성하면 종을 치는 리듬 퀴즈 수업 중 매우 빠른 속도로 리듬을 계산하여 주변 친구들을 여러 번 놀라게 함.
- 다양한 음표와 쉼표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리듬 퀴즈 수업에서 자신이 속한 모둠이 점수를 제일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도전골든벨 텔레파시

게임설명서

게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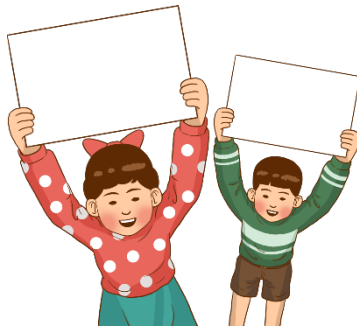
- 교육 예능 '도전 골든벨'의 모둠별 협동판 게임
- 셋 또는 넷이서 한마음이 되어 한 글자씩 적어 답을 맞히는 게임
- 화이트보드에 해당되는 답을 순서를 정해 한 글자씩 적고 동시에 올리기
- 모둠원이 쓴 글자를 연결하여 답이 완성되면 점수 획득

게임 소개
영상 QR코드



준비물

- 화이트 보드



기대 효과

- 의사소통능력, 공동체 역량 향상
- 형성평가 역할
- 답을 쓰기 이외에도 창의적 표현 (그림그리기, 자석 붙이기)방법 가능



게임 진행

1. 3~4명으로 구성된 모둠을 만들어 세로 1열로 앉아 서로의 뒤통수를 보게 한다.
2. 모둠원 모두에게 1인당 1개씩 화이트보드와 마카, 지우개를 나눠준다.
3. 제시한 문제의 답을 맨 앞자리부터 한 글자씩 적고 동시에 올린 후, 차례대로 연결하여 답이 완성되면 점수를 획득한다.
4. 글자 쓰기 외에도 감상 악곡을 듣고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동시에 그림을 확인하는 방법도 강력 추천. (예시.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비발디 사계 등)

생기부 기재 예시

- 서양 음악 감상 수업 이후 모둠원들과 예상 기출 문제를 뽑아보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모습이 돋보임.
- 모둠 놀이 수업 내내 눈에 띄게 열정적인 태도를 보여 상호 피드백 시간에 모둠원 중 가장 많은 활약을 한 학생으로 뽑혔을 정도로 음악에 많은 관심과 흥미가 있으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이 돋보인 학생임.

노래메들리 가창게임

게임설명서

게임 개요

- 한 학기 동안 배운 가창 악곡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
- 학생들이 다소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가창을 재미있게 놀이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임.
- 직접 악곡의 음정과 박자를 내청하며 내청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임.

게임 소개
영상 QR코드



준비물

· 한소절 악곡 카드

- 한 학기동안 배운 가창곡
- 대표 동요
- 대표 대중가요



기대 효과

- 내청 능력 향상, 음감, 리듬감 향상
- 가창 악곡 형성평가 역할
- 공동체 역량 강화



게임 진행

1. 약 3~4명으로 모둠을 구성하고 게임 시작 전 호흡 및 발성 연습을 한다.
2. 한 소절이 적힌 악곡 카드를 제시하면 그 소절을 포함하여 그다음 소절까지 음정과 박자를 지켜 노래 부르고 제목까지 맞춰야 답으로 인정한다.
3. 예시 문제로 게임의 룰을 익힌 다음 실전 게임으로 진행한다.
4. 한 명이 부르기 부담스러워하면 모둠원들이 다 같이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생기부 기재 예시

- 가창 연계 놀이 수업 중 모둠원들이 제재곡을 정확한 음정과 박자를 지켜 완창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속적으로 박자를 쳐주고 음정을 교정해 주는 모습을 보임. 어떤 부분에서 모둠원이 어려워하는지 구별하는 음감 능력과 이를 친절하게 교정해 주는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남.

탕수육 N분의 1 가창게임

게임설명서

게임 개요

- 탕수육 게임을 활용하여 N분의 1로 노래 부르기 게임
- 난이도별 제시된 악곡을 가장 빠르게 완창한 모둠이 우승하는 게임
- 모둠원들이 서로 내청을 하며 함께 소통하여 곡을 완성
- 박자와 음정을 지켜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노래하는 것이 핵심

게임 소개
영상 QR코드



준비물

- 난이도별 미션 악곡



기대 효과

- 내청 능력 향상, 음감, 리듬감 향상
- 가창 악곡 형성평가 역할
- 공동체 역량 향상

게임 진행

1. 한 사람당 한 음절씩 노래 부르며 곡을 완성시키는 게임 룰을 설명한다.
2. 난이도 하로 생각되는 예시곡을 연습 악곡으로 제시한다.(예. 작은 별)
3. 난이도 중으로 생각되는 예시곡을 미션 1로 제시한다.(예. 곰 세 마리)
4. 배운 가창곡 중 적절한 악곡을 선정하여 최종 미션 악곡으로 제시한다.
5. 제일 먼저 곡을 완성시키는 팀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생기부 기재 예시

- 가창 연계 놀이 수업 중 모둠원들이 제재곡을 정확한 음정과 박자를 지켜 완창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속적으로 박자를 쳐주고 음정을 교정해 주는 모습을 보임. 어떤 부분에서 모둠원이 어려워하는지 구별하는 음감 능력과 이를 친절하게 교정해 주는 모습이 돋보임.



뮤직T랜드 구독자 쌤들을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선물 보따리



코로나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
어느덧 연말입니다!

학기 말 음악 시간에
게이미피케이션 음악 수업 어떠세요?
아이들과 재밋고 훈훈하게
1년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료 만들기에는
한창 바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게이미피케이션 자료를
선물 보따리에 담아 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한 4가지 수업 이외에도
학기 말에 이벤트로 하기 좋은 자료도 넣었으니
아이들과 즐겁게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전국 음악선생님들 모두 파이팅!

열매쌤
선물보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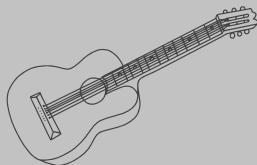


수업의 시선으로 본 다큐멘터리

EBS 다큐 프라임 ‘악기는 무엇으로 사는가’

에디터. 이지샘

평소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을 좋아해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보는 편인데, 그중 가장 즐겨 보는 방송이 EBS 다큐 프라임이다. 개인적으로 ‘문명과 수학(2011)’, 빛의 물리학(2013)’ 시리즈가 가장 인상적이었고, 덕분에 학창 시절에 놓았던 수학, 물리 과목과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다큐멘터리를 볼 때마다 음악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수업에도 활용할만한 다큐멘터리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2019년, 기다림 끝에 방영된 다큐멘터리가 ‘악기는 무엇으로 사는가’이다.



EBS 다큐 프라임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 평생교육이라는 공공의 과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시대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과학, 역사, 환경, 자연, 사회를 총망라하여 제작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매주 월~수요일 오후 9시 50분부터 방송하며 하나의 주제를 보통 3~5부작에 걸쳐 방영한다.

‘악기는 무엇으로 사는가’는 총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큐멘터리 소개는 다음과 같다.

1부 악기들의 무덤

현재 이뤄지는 공연에서 주로 사용되는 악기들은 오랜 소리 전쟁의 승자다. 그들이 승자가 되어 현재의 음악을 지배하게 된 이유를 파헤친다. 강원도 어느 창고는 악기들의 무덤이다. 죽은 악기들은 밤마다 깨어나 잘나가던 호시절을 그리워하며 떠돌아댄다. 여기 국내 최고의 악기장인 6명이 찾아와 6가지 악기를 골라낸다. 무덤은 작업장으로 바뀐다. 한 악기의 심장을 되살려내는 일은 고되지만, 그 과정을 따라가며 악기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과정이 된다. 악기는 음악의 매개체이자 탄생지이며, 음악의 역사를 고스란히 몸에 새기고 있는, 음악의 현신(incarnation)인 것이다. 악기를 되살려놓고 장인들은 떠나고, 이번엔 연주자들이 찾아온다. 공간은 어느새 공연장으로 변하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들며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장인과 음악가와 청중이 죽은 악기를 살려냈다. 되살아난 악기들이 기쁨의 연주를 펼치는 동안 한구석에서는 버려진 채 남아있던 악기들이 행복하던 시절을 꿈꾼다.

2부 악기가 악기를 만났을 때

악기들의 보편적 특성과 개성을 심화하여 분석한다. 최신의 악기학, 음향학의 성과를 감각적인 영상으로 보여준다. 한양대학교의 음악학자 정경영 교수. 음악이란 틀거리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온 그에게 새로운 관심이 생겼다. 바로 악기들이다. 왜 악기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가 많은가 말이다. 그는 작정하고 작업실을 차리고 들어앉아 음악적 환각을 동반한 고민에 빠져든다. ‘악기가 악기를 만나면’이라는 단순한 질문은 단순한 듯했으나, 편성론, 악곡론, 해석, 조율 등에 이르기까지 음악의 모든 분야를 휘젓는 사유로 발전하고, 동요에서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악의 합주를 찾아다니게 만든다. 이 모든 발견을 정제하고 지워나가니 악기들의 만남의 한 가운데에는 한줌의 진실이 남는다. “들어라. 함께하고자 한다면.” 정교수는 모든 음악가들이 동의하는 앙상블의 기본 태도에 도착했고, 학기말 시험을 맞아 학생들 몰래 어떤 깨달음의 이벤트를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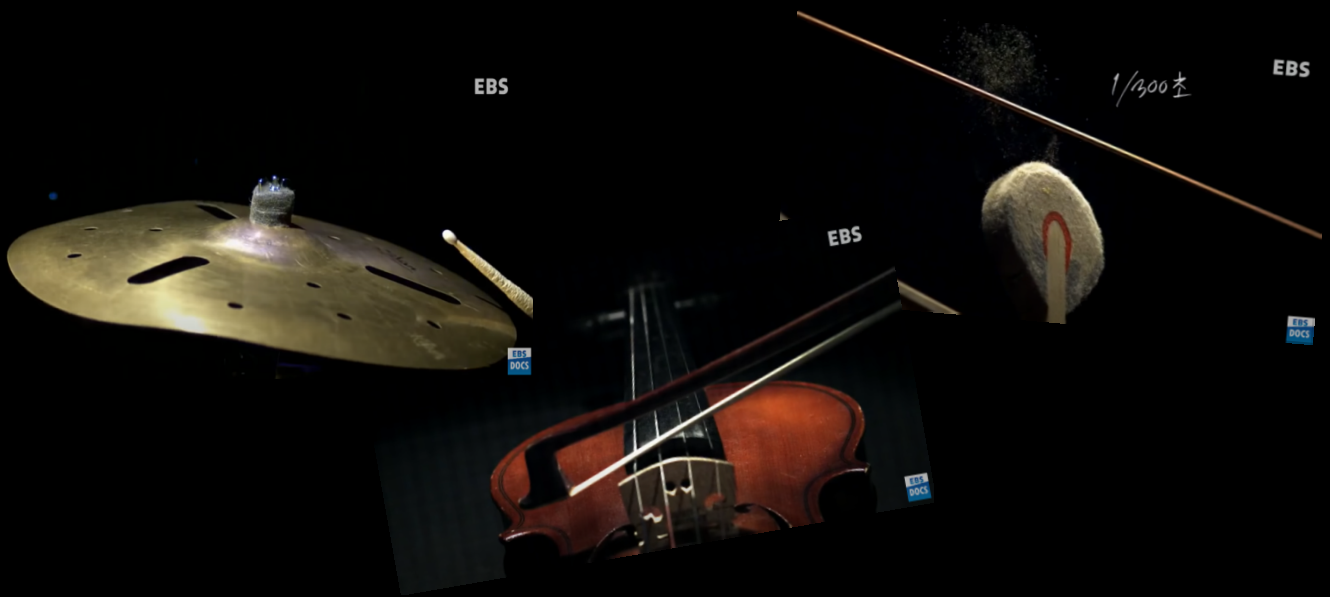
3부 이것도 악기일까요?

싸움의 심판관인 청중의 취향문제와 진화에서 시작하여, 새롭고 흥미로운 악기들의 소개, 그리고 소리의 개념을 바꿔놓는 발상과 그런 음악을 소개한다. 사운드 아티스트 권병준을 중심으로 미술가, 음악가, 건축가, 악기제작자, 조경전문가 등의 융복합적 예술가들이 모인다. 우리는 이들에게 현재의 기술로 이제까지 없던 악기를 만들어보라고 제안한다. ‘3D프린팅’이라는 최신의 기술과 전통악기의 대표선수인 피아노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악기가 탄생할 것인가? 이 작업은 악기의 개념을 확장하는 과정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전통악기의 가치를 새삼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버린다. 과연 어떤 악기가 탄생했는가? 새로 만든 악기를 가지고 벌어지는 마지막 연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업에 활용되는 다큐멘터리

1부 '악기들의 무덤'

망가진 악기들이 쌓여있는 창고에서부터 시작되는 다큐는 그 악기들에게 소리를 찾아주는 과정들로 채워진다.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내기 위해 악기가 진동해야 하며 현악기에서 활에 의한 현의 진동, 피아노에서 해머 헤드에 의한 현의 진동, 리드의 떨림 등이 영상으로 제공된다. 단순히 설명으로만 들으면 이해가 어려운 각 악기별 소리의 원리를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높인다.



(출처: https://youtu.be/WNc_hw_rx2E)

2부 '악기가 악기를 만났을 때'

악기의 만남이 조화로우려면? 이란 질문에 다양한 답들이 나오고 그중 평균율과 순정률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정의, 이미지, 그리고 실제 악기의 연주까지... 이 부분을 봤을 때 얼마나 환호했는지 모른다. 학생들이 이 내용을 머리로 이해해도 실제로 들어보고 차이점을 체험해 보기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장면 하나로 모든 설명이 필요 없게 되었다. 제작자분들에게 감사를...!



(출처: <https://youtu.be/CNRxnmoPZuY>)

또한 화성 음악과 다성 음악을 악보, 이미지 자료와 함께 연주로 들려주는데 음악의 짜임새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짧지만 확실한 자료를 얻는 느낌이었다. 제작자분들에게 감사...! 2



L.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바장조' 봄 1악장



J.S.바흐 '인벤션 4번 라단조'



J.S.바흐 '푸가의 기법' 1곡

(출처: <https://youtu.be/CNRxnmoPZu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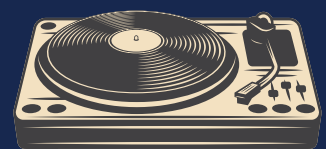
3부 이것도 악기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든 악기, 그리고 당근,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로 만든 악기, 또한 3D 프린터로 만든 기존에 없었던 형태의 악기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재료로 악기를 만드는 과정이 나온다.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지 않던 학생도 흥미를 가지고 집중해서 봤던 편이 이 3부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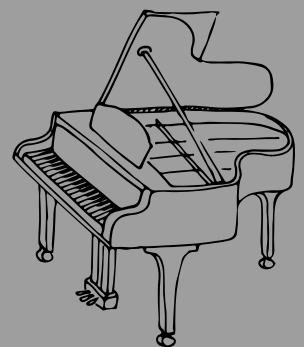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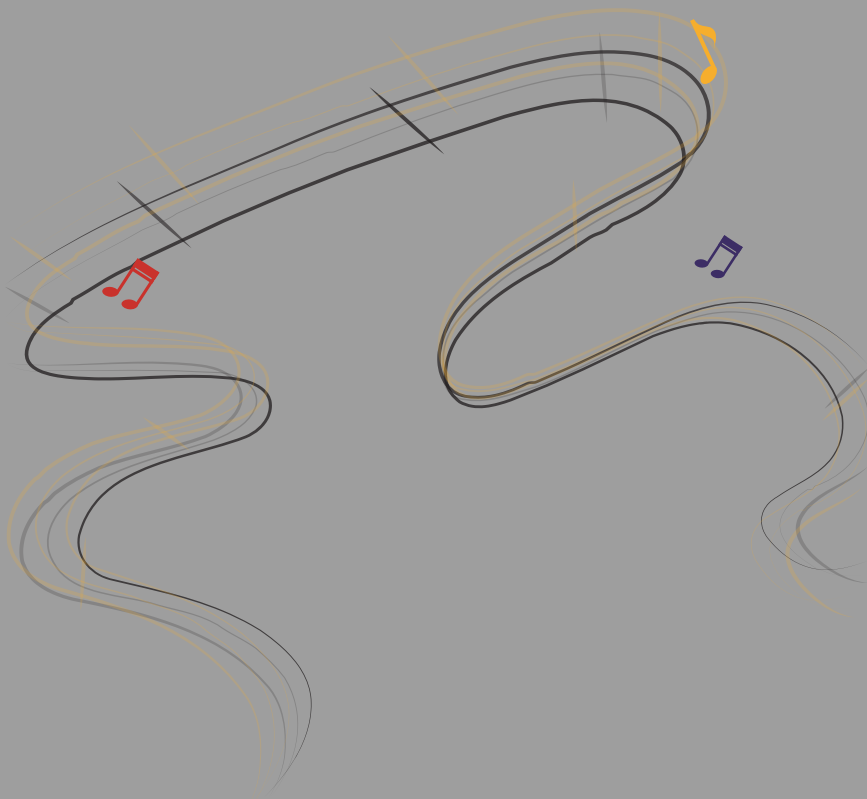


외부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공간 안에서 애네들이 굴러다니면서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할 거예요.

EBS
DOCS



이 글은 '악기는 무엇으로 사는가' 다큐멘터리의 내용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보다 더 많은 내용과 자료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글에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은
유튜브 EBS 다큐멘터리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으로
꼭 한 번 감상하시기를 추천한다.



악기는 무엇으로 사는가 감상 QR코드

1부



2부



3부



선생님의
일상 이야기



수업시간 OFF

INTERVIEW

퇴직을 앞둔 음악선생님의 **BRILLANTE**한 이야기

음악교사, 강석형입니다.

에디터: 홍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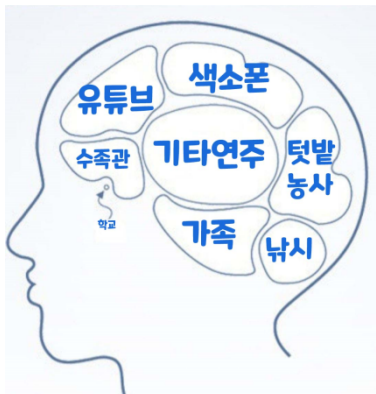
정신없이 교사생활을 하는 도중,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음악교사 안하면 난 뭐하고 있었을까? 교사 그만두면 난 뭐하고 있을까? '

에디터의 짧은 교직생활을 돌아보았다. 20대의 임고생은 어찌다보니 음악교사로 바뀌어져있었고, 정신없이 학교 생활을 우당탕탕 했었던 것 같다. 30대의 음악교사로서 문득 하던 일을 멈추고 음악교사가 아닌 나 자신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음악교사가 아닌 나. 현재는 정말 상상이 잘 되지 않았다. 점점 40대가 다가오며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교사로서의 나 말고도 많은 역할이 생겼다. 이러다 퇴직하면? 실제로 음악을 가르치는 것 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이 잘 나지 않았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정년을 앞둔 음악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은퇴를 앞둔 음악교사, 강석형 음악선생님(경기 광명고등학교 교장)의 멋진 음악 교사로서의 삶, 제2악장인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다루게 되었다.

Q.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는 이미지로 대체하겠습니다. (실제로 주신 사진 첨부)



<강석형음악선생님의 현재 뇌구조>



<지휘자로서의 모습>

Q. 올해 교직 몇 년차 이신가요? 어려우시겠지만 그 동안의 학교생활, 음악교사로서의 삶을 이야기해 주세요.

올해로 교직생활 33년차입니다. 1988년 3월 1일 충남 합덕농업고등학교(현재는 합덕제철고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아 교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주사범대학에서 나름 교사되기위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발령받고 아이들 앞에 서니 전문성 면에서나 마음가짐 면에서 전혀 준비되어있지 않은 나를 발견하고는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 준비없이 시작한 교직생활이라 온통 실수의 연속이었구요. 주위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어설픈 2년을 보내고 경기도로 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발령받은 학교는 강화도에 있는 강서중학교 양사분교라는 지금은 폐교된 아주 작은 학교였습니다. 전교생 100여명 밖에 안되는 아주 작은 학교였지요. 건물도 초등학교와 함께 있었고, 교무실도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 작은 학교에서 꿈과 같은 3년을 보냈구요. 그 때 교직에 대한 내 나름의 철학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모두가 페스탈로찌 같은 분들이었고 학생들이 모두 가족처럼 느껴지는 그런 학교였지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 때 꿈을 꿉니다. 너무 그리운 시절이었나봐요.

그 후 김포에 대곶중학교로 발령을 받았고, 교직생활 6년차에 이르러 음악교사로서의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교과서수업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를 채우기 위해 현악반을 만들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저는 클라리넷 전공이라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현악기는 만져보지도 않았다가 첫 발령 받고 나서 톱툰이 혼자 독학으로 바이올린을 연습해 왔거든요. 혼자 연습하면서 관악기에 서는 느낄 수 없는 매력을 바이올린에서 느끼고, 빠져든 거지요.

‘이 아름다운 악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나중에 합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란 생각에 학교에서 현악반을 만들었습니다.

바이올린을 구경도 못 해 본 시골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한 거지요. 방과후학교라는 말도 없던 시절에 아침 자율 학습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 할 잡는 법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열정은 양사분교에서부터 싹트고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후에 처음으로 연주회를 갖게 되었고,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로 가는 학교마다 현악반을 만들었고 규모도 차츰 커지면서 오케스트라가 되었어요. 다행히 제가 금관악기, 목관악기, 현악기를 모두 다룰 수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혼자서 다 가르치다가 점점 규모가 커져서 강사들도 채용하고 그랬습니다. 교감으로 승진 후에는 수업 일선에서는 물러나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중학교 교감으로 있을 때, 경기꿈의학교 단편영화 제작반을 만들어 학생들과 단편영화를 만들어 영화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학교인 부천 내동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해서는 색소폰 동아리를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광명고등학교에서도 단편영화 동아리를 맡아 지도중입니다. 관리자라 하더라도 동아리 수업 등을 맡으면 수업에 대한 감을 잃지 않게 됩니다. 선생님들의 고충도 더 잘 이해하게 되구요. 그래서 저는 일부분 이지만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대곶중학교현악반제자들과함께(1995)>



<광명중학교 꿈의학교 단편영화>

Q.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수업과, 선생님의 음악교육철학을 말씀해주세요.

음악수업은 교과서를 가지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많은 나라들을 보면 음악수업은 합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합주를 통해서 음악의 본질을 배울 수 있거든요. 저는 모든 학생들이 악기 하나씩 배우고, 자기 수준에 맞는 그룹에서 합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음악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음악교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대곡중학교에서 처음으로 현악반 연주회를 했던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에 연주회를 할 만 한 장소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교내엔 없어서, 이웃에 있는 초등학교 강당을 가보았습다. 그 강당은 몇 년 째 창고였었는데 부서진 의자, 운동회때 사용하는 온갖 도구들이 먼지가 자욱한 채 쌓여있었어요.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을 찾아가 연주회를 하게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알아서 치우고 사용하려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아이들 동원해서 그 많은 짐들 다 끄집어내고, 거미줄 청소하고, 객석 의자도 중학교에서 가져다가 배치를 하고, 아.....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연주회 날짜를 토요일 오후 3시로 잡았는데 (그 때는 토요일도 등교했음) 막상 시간이 되어도 관객이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연주회가 뭔지도 몰랐었을 테니까요. 부랴부랴 주위 선생님들이 지나가는 애들, 운동장에서 공차는 애들 다 불러들여 겨우 객석을 채우고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 후로는 연주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연주회때마다 가득 객석을 메우게 되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연주하는 학생들과 지휘하는 선생님의 모습>

Q. 유튜브 채널 [슬기로운 농막생활] 을 운영하고 있으신데요~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대해 소개 해 주세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10년도 넘었어요.

[슬기로운 농막생활] 채널을 따로 만든건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채널에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한 거지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동영상 촬영에 취미가 있었는데 잘 편집해서 만들어놓은 가족여행 영상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관할 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하드디스크는 뺏히면 포맷해야하구, 그럴 때 마다 일일이 복사하기도 그렇구.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 놓으면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보관할 순 있겠다 싶어서 자료 보관용으로 이용했어요.

제 채널을 보시면 동영상이 350개가 넘어요. 대부분은 기타연주, 색소폰연주, 인천기계공고 동문연주회 동영상, 가족여행 동영상 등이 구요. 슬기로운 농막생활 동영상은 30개도 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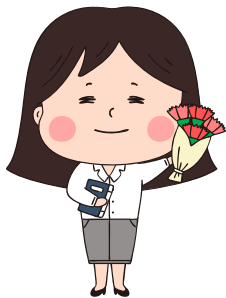
지난 3월에 강화도에 농막을 놓으면서, 내 또래 50~60대 남자들의 로망이 전원생활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 시작했어요. 근데 벌써 콘텐츠가 바닥이나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뭐든 의무감으로 하게되면 재미도 없고....늘 하던대고 맘가면 하다가 싫증나면 그만두면 되지요 뭐.... 어차피 재미로 하는거라 큰 부담은 없습니다.

Q. 은퇴를 앞둔 음악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은퇴 앞둔 사람한테 절대로 하면 안되는 질문이 “은퇴준비는 되셨어요? 뭐 하실 예정이세요?” 하고 묻는겁니다. 입시생한테 “너 대학 어디 갈거니?” 묻는 거랑, 혼기다된 젊은이한테 “너 결혼 언제할거니?” 하고 묻는거와 같아요. ㅎㅎㅎ

Q. 끝으로 전국의 음악선생님들께 한말씀 해주세요

음악은 교과서대로 가르치면 되는 교과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가르쳐야하는 과목이지요.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민하십시오.



인터뷰를 마치며.

강석형 선생님은 사실, 에디터의 은사님이십니다.

저에게 음악교사의 길을 권유하셨고, 진학과정중 흔들리고 방황할때 조언을 주시고 늘 힘이 되어주신

멋진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바로 그 시골 중학교 현악반 출신이지요.. 기사를 작성하면서

먼저 자욱한 강당과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시간 가는줄 모르고 연습하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늘 멋지고 음악의 신 같으셨던 선생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

무척 행복하고, 선생님께서 정년을 앞두고 있다니

무언가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 선생님! 존경합니다. 선생님이 걸어오신 음악교사의 길

저도 잘 따라 걸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INTERVIEW

음악교육계의 라이징 채널 음플릭스 음악크루와의 인터뷰



에디터: 홍정선

여러분은 어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시대, 집콕시대의 우리 생활 속에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쿠팡, 네이버, 음악스트리밍, 마켓컬리 등 다양한 구독 서비스 플랫폼이 완전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악 수업도 구독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한 21세기 음악 수업에 혜성처럼 등장한 '음플릭스'

뮤직T랜드에서 <음악수업과 오페라를 무제한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운영하는 음악교육 유튜브 채널 '음플릭스' 멤버들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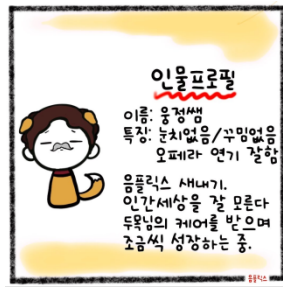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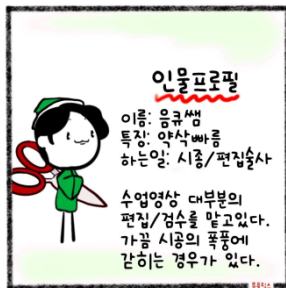
Q. 음플릭스 구성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민규T : 안녕하세요~! 음플릭스에서 막내, 편집 노예, 싱싱했던? 성대를 맡고 있는 청주 양청중학교 음악 교사 이민규입니다.

정웅T : 안녕하세요. 청주 봉명고등학교 음악 교사 김정웅입니다. 음플릭스 수업 콘텐츠 제작 분야에 참여 중입니다.

현도T : 안녕하세요. 음플릭스 부두목이자 오페라 대본, 미술을 맡고 있는 아이디어 뱅크 대제중학교 음악 교사 이현도입니다.

두목T : 충북 청원고등학교 음악 교사 윤진입니다. 두목입니다. 애네 목줄 잡고 끌고 가는 중입니다. 끌고 가다가 잘 안 끌려 오면 뒤에서 밀기도 합니다. 대화가 잘 끊이지 않고 평소 대화가 자연스럽게 콘텐츠로 연결되는 신기한 단톡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4명의 음악선생님들이 모인 음플릭스. 각각의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Q. 음플릭스의 탄생 배경이 궁금합니다. 개인 채널이 아니고, 팀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민규T : 현도쌤이 하면 좋은거 있다고 해서 그렇게 왔는데.....

현도T : 처음엔 저와 윤진 선생님이 공연을 하는 팀을 만들자고 하여 구성되었는데, 이후 테너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민규 선생님과 김정웅 선생님을 영입하게 되었고(인맥 발휘)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 온라인 수업 전문 제작 모임으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두목T : 예전부터 음악 선생님이 공연을 통해서 재미있게 작품을 해설해주고 실제로 연주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어요. 일정 연수 가서 현도쌤을 만났는데 ‘저는 현도비(도비는 자유야! 그 도비 맞습니다)입니다.’라고 이마에 써붙였더라고요..? 제가 일정 연수 회식을 기획하면서 마음 맞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라고 쓰고 낚아서 라고 읽어주세요.) 처음엔 공연 팀으로 출발하려고 했어요. 현재는 구성원과 시국의 변화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고 음플릭스 채널에 이렇게 귀중한 네 분의 선생님이 남게 되었습니다.

Q. 음플릭스에는 다양한 콘텐츠 코너가 있는데요. 각각의 코너를 설명해주세요

현도T : 대표적으로는 오페라, 선생님들께 필요한 에듀테크 관련 연수들, 선생님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쇼츠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페라 콘텐츠 정도만 고정으로 올리고 있고 나머지는 그 때 그 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여 연수용/ 수업용으로 나누어 올리고 있습니다.

두목T : 아...와서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

음플릭스의 다양한 콘텐츠

허니버터 TIP

에듀테크 강의 주제 중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만한 짧은 팁 영상.

자꾸 보는 작곡 수업

화성과 코드의 기초. 짧은 가락 짓기에 활용할 수 있는 창작 수업의 베이스가 되는 작곡 수업 영상.

교과서 노래방

반 키 내림/ 한 키 내림 다 가능함.
교과서 노래 내 키에 맞게 부르세요.
노래방 감성 화면과 MR로 제공합니다.

클래식 플레이리스트

클래식이 듣고 싶을 때 재생하세요.

음악 게임

술게임 좋아하는 두목님이 음악 수업에다가 게임을 섞어버렸어요. 수업만 하면 뻘애크 하는 학생들과 함께 해보세요. 놀다가 배우는 음악 이론!

10분 오페라

이게 된다고?
오페라와 뮤지컬 작품 전체 줄거리를 10분에 정리. 선생님들의 깨알같은 연기는 덤.

5분 서양 음악사

이게 된다고? 5분 안에 서양 음악사 시대별로 내용은 빠뜨리지 않고 다 넣었습니다. (*말이 빠를수도)

국악 한 사발

국악 어렵지 않아요. 절대 10분을 넘기지 않으면서도 내용은 다 담아서 전달합니다. 영산회상, 대취타, 시조와 가곡 등 다양한 국악곡을 배워보세요.

칼림바 타일

온라인 수업 후 칼림바 붐이 있었잖아요? 집에서도 재밌게 칼림바 타일로 칼림바를 연습해보세요. 난이도별로 제공됩니다.

집콕 음악 수업

음플릭스 채널 오픈 전에만 들어 둔 과거 수업 영상들의 집합. (저희는 못 봅니다.. 내 손발..)



Q. 음플릭스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민규T : 착한척(?)을 해야 한다는게 힘드네요. 개인 채널이었으면 운영을 막 했을텐데. 농담입니다.

현도T : 아무래도 학교생활과 병행하며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면 쉬엄 쉬엄하면서 최대한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배려하는 편입니다.

정웅T : 유익하면서도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를 간직한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학교 음악 수업을 근간으로 시작했지만, 채널이 끝까지 단순한 원격 수업 자료로 활용되는 건 원치 않아요. 저희는 학교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익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음악 채널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순도를 높이는 데 많은 고심을 합니다. 사실 담고 싶은 내용은 정말 많지만, 모두 담지 못해요. 사람들이 영상을 보는 집중력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특히 뮤지컬이나 오페라는 저희끼리 정한 10분이라는 제한에 맞추기 위해 한 글자씩 깎아내는 대본 작업을 오래 합니다.

두목T : 막내가 자꾸 기어오르네요? ^^



음플릭스의 슬로건

Q. 두목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목님과 관련된 재밌는 일화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민규T : 두목님께서 잘 보살펴 주셔서 전혀~ 뭐 그런거 없고요. 간혹 애가 이상하다 싶으면 치료(물리)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하.

현도T : 두목님은 항상 예뻐니다. 두목예뽀무새. 이 질문에는 대답할만한 일화가 없네요. 두목님은 권력을 남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아, 미모도 권력이라면 사실상 독재가 맞습니다.

정웅T : 맨날 절 혼내요ㅜ.ㅜ 농담이구요. 리더로서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두목님은 배울 점이 정말 많은 열정 부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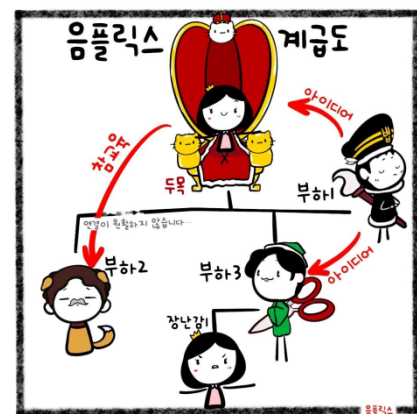
두목T : 이 질문 누가 하셨나요. 이리와봐.

Q. 앞으로 음플릭스의 목표, 꿈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민규T : 꿈은 없고요. 놀고 싶습니다.

현도T : 부귀영화입니다.

두목T : 치킨이랑 술 사먹을 돈만 있으면 세상은 행복해요.



Q. 끝으로 전국의 음악선생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현도T : 전국에 계신 음악선생님. 음악 수업 고민하느라 힘드셨죠? 저희 음플릭스 채널 보시고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음플릭스 구독, 댓글,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민규T : 예쁘고 어리고 실력 있는 미혼 선생님 010-62**-****. 농담입니다.

두목T : 그럼 나도 나랑 놀사람!!! 나는 농담아님 ㅋㅋㅋㅋ

신규교사다이어리
우당탕탕
수행평가

에디터. 서연쌤



20xx년 3월 xx일

생각보다 더 버거운 학교생활이지만 그래도 아직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다. 오늘은 학교에 정식으로 출근한 지 3일째 되는 날이다. 컴퓨터를 켜니 아침부터 메신저가 가득하다.

죽지 않기	- □ x
제목 없음	인쇄
선생님 안녕하세요~ 연구부 000입니다. 20xx학년도 1학기 평가계획과 진도계획 00/00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b	
발신자	
연구부 000 선생님	
첨부파일	
엄청 복잡한 제목으로 된 파일 무려 6개 (열어보기 무서움)	

-
-
-

난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없게 되었다.

20xx년 3월 xx일

‘읽지 않음’으로 표시해둔 메시지가 붉은 파란색 글씨로 자꾸만 번쩍번쩍 눈에 들어오지만 일단 못 본 척을 하기로 한다.

서연쌤의
신규교사
다이어리

평가계획 수립은 학기 초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평가 계획에 따라 어떤 단원을 가르칠지,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동 교과 선생님과 협의회를 거쳐 열심히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부담스러운 마음에 자꾸 미루게 되더군요. 처음 세우는 평가계획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벌써 네 번째 평가계획을 세웠지만 아직도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귀찮기도 하고요. 초임교사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동 교과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달달 외울 때는 이걸 왜 외우나 싶었는데, 은근히 도움이 된답니다. 하지만... 인쇄해놓은 자료를 보면서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토씨 하나 안 빠고 달달 외우는 것은 정말 시험을 위한 암기였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심지어 기억이 안나요ㅎㅎ 시험 치자마자 다 까먹은 거 저뿐인가요?

20xx년 3월 xx일

서연쌤의 신규교사 다이어리

생각보다 공강 시간을 활용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평가계획을 짜보기로 했다. 그래도 작년 자료도 있고 우리 학교의 평가계획 양식도 있어서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교, 수, 평, 기 일체화가 중요하다고 하니, 내가 한 학기 동안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평가계획에 녹여내는 것이 목표이다.

우리 학교는 한 학기 동안 4개의 수행평가를 봐야 한다. 음... 좀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할 수 있으니깐 4개씩이나 하라고 하는 거겠지? 우선 음악 수행평가이니 가창과 기악은 기본으로 하고... 감상도 하나 넣고 나머지 하나는 주제논술을 꼭 하라고 한다. 임용 공부할 때 내가 국악을 잘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국악의 아름다움을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오던 지라 국악의 아름다움과 세계화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주제논술 평가를 하기로 했다.

가창도 그냥 교과서에 있는 곡을 배우고 부르게 하는 건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다. 곰곰이 생각하고 교과서도 뒤적뒤적 살펴봤다. 오 아카펠라? 그래 이거다.

초임교사의 열정이 화르륵 불 붙었다.

절대 재미없고 의미없는

평가는 하지 않으리...!!



평가계획은 학교마다 그 틀이나 양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가의 목적, 기본방향과 방침, 평가의 종류와 반영 비율,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세부기준, 수행평가 미응시자 처리, 평가 유의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교사가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할 부분은 평가의 종류와 반영 비율, 그리고 수행평가 세부기준입니다. 먼저 평가의 종류와 반영 비율은, 이번 학기에 몇 개의 평가를 보고, 어떤 평가를 하고, 각각 몇 퍼센트씩 내신에 반영할지를 정하는 부분인데, 다른 과목은 이 부분에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을 나누지만, 음악, 미술, 체육 과목은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평가 100%를 기준으로 반영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음악과의 경우 평가의 종류는 교육과정의 표현, 감상, 생활화가 모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학교는 총 4개의 수행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표현 영역에서 가창과 기악 두 가지, 감상에서 한 가지, 생활화에서 한 가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충 무슨 평가를 할지 정했으니 오늘은 틀에 맞게 수정하고 검토를 해야 한다. 평가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역인 표현, 감상, 생활화를 모두 평가할 수 있도록 아카펠라, 컵타, 국악 주제논술, 뮤지컬 감상을 하기로 했다. 평가 요소도 정하고 평가에 맞는 성취기준도 적어야 한다. 그런데 무슨 평가를 할지 먼저 정하고 교육과정 책자를 보면서 알맞은 성취기준을 찾으려니까 안 맞는 게 꽤 많았다. 처음부터 교육과정을 참고하면서 평가를 정해야 했나 싶기도 하다. 근데 그러면 또 재미없고 경직된 수업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론대로, 배운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다시 한 번 생각했다.

평가 종류	수행평가				총점
반영 비율	25%	25%	25%	25%	100%
횟수/영역	표현(가창)	감상	주제논술 (생활화)	표현(기악)	.
만점 (반영비율)	25점 (25%)	25점 (25%)	25점 (25%)	25점 (25%)	100점 (100%)
논술형 평가 반영비율	.	.	25%	.	25%
평가 시기	3월	4월	5월	6월	.
교육과정 성취기준	[9음01-01] [9음01-05]	[9음02-02] [9음02-03]	[9음02-02] [9음03-02]	[9음01-01] [9음01-05]	.

평가의 종류와 반영 비율을 정하고 나면 세부기준을 작성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각 평가의 평가요소와 채점 기준을 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평가의 종류와 반영 비율에서 가창 평가를 25% 반영하기로 결정했다면, 세부기준에서 가창 평가를 볼 때 어떤 요소로 평가를 할지 정합니다. 1. 음정이 정확한가? 2. 리듬이 정확한가 등이겠지요. 그리고 이 평가요소를 모두 만족하면 25점, 한 개를 만족하지 못하면 22점 이렇게 평가 기준도 정해야 합니다.

사실 가창 평가 등 음악과의 평가는 노래를 잘 한다, 못한다가 교사의 주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때문에 이 세부기준을 실재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 학생이 중간까지는 노래를 아주 잘 했는데 뒷부분은 노래를 외우지 않아서 끝까지 부르지 못했고, B 학생은 노래를 끝까지 부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어떤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할지 헷갈리지만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웠다면 그 기준에 따라 점수를 주면 되니 조금 더 주관성이 배제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해진답니다. 하지만 음악은 참 평가하기가 애매한 과목인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예술성과 음악성을 평가하겠어요ㅜㅜ

20xx년 4월 xx일

서연쌤의
신규교사
다이어리

다음 주에는 드디어 첫 번째 평가인 아카펠라 평가를 한다.

평가 요소는

1.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하는가?
2. 일정한 박자와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하는가?
3.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아카펠라를 할 수 있는가?
4. 셈여림과 악상기호를 살려 음악성 있게 노래하는가?

등이었다.

한 달간 라이온 킹 ost인 'The Lion Sleeps Tonight' 을 연습했는데 원래 아카펠라는 반주가 없는 것이 정석이지만 막상 해보니 아이들이 자꾸 빨라져서 반주를 깔고 연습을 시켰다. 다 함께 노래하다 보면 소프라노 성부만 남게 되는 것 같기도 했지만, 한 달간 수업도 하고 조별로 연습도 많이 했으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몇 조 빼고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일주일간 평가를 해보고 잘하는 아이들은 영상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20xx년 4월 xx일

평가 요소에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 있다.'를 넣었어야 했다.
아이고 머리야.



20xx년 4월 xx일

서연쌤의
신규교사
다이어리

오늘은 평가 3일째다. 제출했던 평가 기준대로 평가했다간 평균이 50점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 관대하게 평가하고 있다.

조별로 노래를 하는 평가인데도 45분은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준비를 잘해온 조일수록 ‘아 선생님 잠시만요...’ 반주를 틀어줘도 ‘아아!! 쌤 다시 하면 안 돼요?!?!’ 이러는 통에 시간이 자꾸만 지연된다.

다음 주는 온라인 수업이라 평가도 못 한단 말이다. 이놈들아!



생각보다 온라인 수업은 평가 준비에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입니다. 이제 어느덧 온라인 수업 2년 차, 온라인 수업에는 완벽 적응하여 오프라인보다 몸은 편하네~ 라는 생각도 하지만, 평가 시즌이 되면 온라인 수업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다른 과목처럼 수행평가가 한 두 개면 모를까, 한 달에 하나씩은 수행평가를 쳐야 하는 음악과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기든 필기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꼭 학교에 와서 수행평가를 보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가창이나 기악의 경우 학생들의 얼굴이 보이게 영상을 찍으면 평가가 가능하긴 한데, 그 영상 죄다 돌려보는게 예삿일을 아니더군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20xx년 4월 xx일

“애들아 이제 한 팀씩 악기 준비실 들어가서 평가할게요~”

“오늘 수행평가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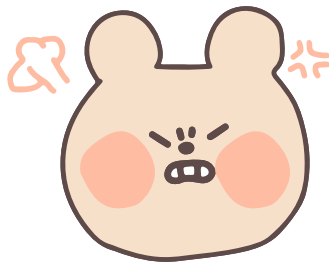
(응)

“쌤이 말 안 하셨는데요?”

(했음. 온라인 클래스에 공지도 올림.)

“쌤 조별로 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조별로 연습했는데 혼자 할래 그럼?)



20xx년 7월 xx일

와 주제논술 언제 치지?

한 학기에 4개 어떻게 보는 거지!!!

20xx년 7월 xx일

서연쌤의
신규교사
다이어리

퓨전국악도 들려주고, bts 노래에 국악적 요소가 들어간 것도 보여주고, 토론과 발표도 시켜서 국악 주제논술을 준비했다. 한 학기에 4개의 평가를 치다보니 평가를 위해서 수업을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다. 그런데 또 평가 안한다고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다. 교육학 시간에 배운 조작적 조건화 이론의 적용은 학급 당 인원수가 7명 정도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재밌는 수업, 그러면서도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다. 내공이 쌓이면 되려나? 아직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래도 이런 생각이 한 번 들기 시작하면 '이 직업이 적성에 맞는가?' 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주변에서는 '신규교사가 못 하는게 당연하지' 라고 위로를 해주기도 하지만 큰 위로는 안 되는 것 같다. 원래도 욕심이 많은 성격이라 그런가보다.

20xx년 7월 xx일

서연쌤의
신규교사
다이어리

주제논술 평가도 무사히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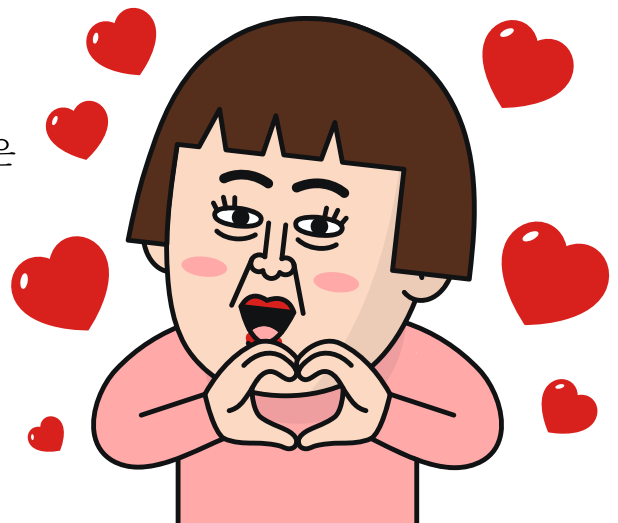
조건을 많이 제시해 주어서 채점하기도 수월할 것 같았는데, 논술평가라는 것은 역시 채점자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평가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 수준이 낮은 것 같아서 점수를 후하게 주다가 보면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등장해서 그아이들에게 은근히 미안해지기도한다. '너희의 글과 애네의 글이 같은 A를 받다니...' 이런 생각이 들곤 하기 때문이다.

종종 감탄이 나오는 글들이 있다. 글 자체를 잘 써서도 있지만, 프린트물에는 없는 내가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간 내용들 까지, 꼼꼼하게 필기하고 암기해서 적어놓은 아이들의 평가지를 보면 거의 짜증까지 섞인 말투로 '아우 진짜 예뻐죽겠네!!' 라고 외치게 된다.

반면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오는 웃음도 있는데 다들 백지 답안지를 예상하겠지만 그건 오히려 반갑다. 처음엔 좀 껄썩해 보여도 몇 백 장이나 되는 논술 채점을 하다가 백지를 발견하면 오히려 고맙달까? 물론 껄썩한 마음도 여전히 있지만, "땡큐~" 하며 기본점수를 주고 넘긴다. 내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답안지는 '국악은 지루한 것 같다.' '선생님이 들려줘서 억지로 들었지만 역시 내 취향은 아니다.' 이런 류다. 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답변을 다 하고 국악의 아름다움이나 자기 취향을 묻는 질문에서 저런 답변이 나온다면 조금 껄썩하긴해도 공부를 하고 열심히 들었는데도 국악이 좋지 않다면 그럴 수 있지 싶지만, 저렇게 달랑 한 줄 적어놓은 답안지를 보면 '그냥 백지로 내는게 손도 안 아팠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섭섭하다.

내가 은근히 좋아하는 답안지는 '선생님 사랑해요.' 답안지이다. 한 반에 두명은 꼭 있는 유형인데, 주로 여학생들이 많고, 절반 정도 채운 답안지 아래에 깨알 같은 글씨로 '죄송해요.' 나 '사랑해요.'를 적어놓는 유형이다. 이 중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은 나를 그리기도 하고, 장문의 편지를 써놓는 부류도 있다.

시험을 다치고 나면 답안지를 거둬들이며 " '선생님 사랑해요' 적은 사람 손들어, 앞으로 나에게 대한 사랑은 성적으로 보여주도록 하세요. 그 사랑 거절합니다."라며 새침을 떨기도 하지만, 그래도 엉망인 시험지만 덜렁 내는 것보다는 괜찮은 전략이라 생각한다.



20xx년 7월 xx일

서연쌤의
신규교사
다이어리

평가가 모두 끝나고 이제 나이스에 접속해서 성적을 입력해야 한다. 수행평가를 치고 그때그때 입력하는 게 가장 좋지만, 평가 자료를 모아 두었으니 학기 말에 한 번에 입력하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다. (이 생각이 과멸을 불러올 줄, 그때는 몰랐다..) 아카펠라 가창부터 입력한다. 2학년 1반 1번 '25점', 2번 '21점', 3번은 노래를 부르다 말았나보다 '13점', 기본점수가 너무 후한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6반 32번 '19점', 이 학생은 수업 태도는 훌륭한데 노래를 잘 못 하나보다. 평소에 잘하던 학생들이 점수를 낮게 받으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 다들 퇴근하고 혼자 남은 교무실에서 '아구구~ 왜 그랬대~' 하며 점수를 입력한다.

나이스에서 7반을 조회하고 채점지를 한 장 넘긴다.

짜늘하다...

왜 6반 다음에 8반 채점지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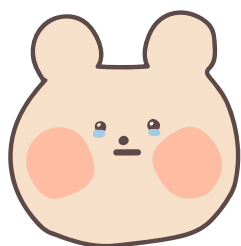
교무실 책상에 쌓인 채점표와 논술시험지를 모조리 뒤졌다. 거기엔 없었다. 책장을 뒤졌다. 거기에도 없었다. 캐비닛에도, 음악실 책상에도, 심지어 담임 교실에도, 아무 데도 없었다... 사색이 된 나는 뒤졌던 곳을 또 뒤지고, 또 뒤졌다. 미칠 지경이다. 정말 이게 없어진 거라면...? 내가 학생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와 함께 분쇄기에 갈갈갈 갈아버린 거라면...? 그럼 7반만 다시 시험을 쳐야 하나? 아직 수행평가 성적 마감까지 한 주 남긴 했지만, 아이들이 한 주 동안 4월에 했던 아카펠라를 다시 연습해서 시험을 치려고 할까? 아니면 칼림바 수행평가 점수를 보고 대충 비슷하게 맞춰야 하나?

채점지에 발이 달린 것이 분명했다. 교사는 너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금이라도 빨리 너의 길을 가라고 채점지가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교사를 그만두면 뭘 해 먹고 살지 생각해본다.

20xx년 4월 xx일

서연쌤의
신규교사
다이어리

어제는 3시가 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내가 잠을 안 잔다고 7반 채점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느라 잠을 못 잤다. 임용 합격 이후에 약간 희미해지고 있던 다크서클이 다시 짙어졌다. 수업 하다가도, 업무를 하다가도, 밥을 먹다 가고 문득문득 떠올라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하아....



5교시와 6교시 사이 수업을 기다리며 잠깐 피아노 앞에 앉아 쉬었다.

'어... 저 악보 파일...? '

수행평가를 할 때 저기에 대고 평가를 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파일을 열었다. 얼굴에 열이 오르는게 느껴졌다. 거기에 있었다. 눈물이 날 뻔했지만 학생들이 음악실로 우르르 들어오는 바람에 꺾 참았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무수첩에 접어서 끼워 넣어놓고는 6교시 수업을 시작했다.

“애들아 쌤이 너희 수행평가 채점지를 잃어버렸었는데...”





선생님들! 퇴근하고 뭐하세요?

우라벨 라이프

에디터. 열매쌤



워라벨



= '일(Work)과 삶(Life)의 균형(Balance)

존경하는 전국의 음악선생님들!
선생님들 모두 건강한 워라벨 라이프를
영위하고 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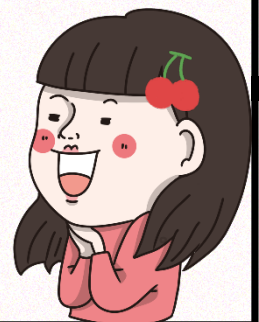
선생님들께서는
퇴근 후에 무엇으로 힐링하시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호기심 대마왕 '에디터 열매쌤'이
전국 6인 선생님의
워라벨 라이프를 책임지는
취미 생활에 대해
취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들의 워라벨 라이프를
함께 구경해볼까요?



GO GO!



첫 번째 선생님 소개

취미만 101가지인 취미부자
천안신당고등학교 음악교사 양다예



1. 취미 부자 열매쌤의 취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뮤직T랜드 선생님들! 취미만 101가지인 취미 부자, 호기심이 많고 꽃히면 꼭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다소 피곤한^^ 성격의 소유자 열매쌤입니다! 저에겐 남편과 썸을 타게 된 계기의 가구 만들기 DIY를 시작으로 프랑스 자수, 조개 모빌, 우유 박스 테이블, 비즈 액세서리 만들기,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미싱, 줌바댄스, 여행 등등 엄청난 취미 여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 현재 2년 넘게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취미인 '차박 & 캠크닉'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2. 차박&캠크닉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2019년, 생애 첫 차로 소형 SUV가 생겼고, 마침 그 해 여름방학에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며 정말 많은 캠핑카와 캠핑족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도 캠핑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2019 가을 주말부터 남편과 가까운 근교를 돌아다니며 차박, 정확히 말하면 차를 가지고 무박 피크닉으로 가벼운 근교 캠핑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차 뒤를 평탄화 하고 거기에 매트와 돛자리, 작은 테이블만 가지고 가까운 근교로 캠크닉을 시작했습니다!



3. 차박&캠크닉에 빠지게 된 매력은?

어릴 때부터 자연을 좋아했어요. 그래서인지 캠크닉을 할 때면 깊은 산속이 아니어도 굉장히 힐링하고 오는 걸 느껴요. 평일에 와다다닥 바쁘게 지내다가 조용히,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올 때면 늘 엄청난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특히 퇴근 후 차에 누워 노트북에 미리 저장해놓은 영화나 예능을 한 편 때리고(?) 오면 뭔가 그날 하루에 받았던 스트레스와 피로가 모두 싹~ 풀리면서 ‘그래! 이게 워라벨 라이프지!’ 라며 텐션이 UP 되어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4. 차박&캠크닉에 투자하는 시간 또는 비용

날씨가 좋은 계절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주 1회 정도 캠크닉을 다녔고요, 시험기간 같은 주는 평일에도 1회 정도 다녔습니다. 현재는 4개월 된 임신부 육아 휴직자라 평일에도 집에서 15분 거리 노지 공원이나 천에 가서 4~5시간 정도 차박 또는 피크닉을 하고 돌아옵니다.

비용은 정말 장비를 어디까지 사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무박 캠크닉을 좋아해서 아직 큰 텐트는 없고 원터치 텐트와 차박에 필요한 몇 가지 장비들만 구비했습니다. 그 중 정말 이 장비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열매쌤 Pick 무박 캠크닉 장비를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하이브로우 밀크박스



네이처하이크 우드체어



카크닉 차박텐트



소림사 에어매트



문캠핑 우드폴 테이블



하이브로우 롱릴렉싱체어



5. 선생님들과 나누고픈 열매쌤의 캠프닉 입문 꿀팁

장비를 사고 싶을 때는 신중 또 신중! 당근마켓을 적극 활용하자!

지인 중 캠핑족이 있다면 미리 간접 체험을 해보고 자신의 캠핑 취향을 파악하자

홈캠핑도 나름 낭만적이다! 겨울에도 캠핑 용품을 활용하자!

유튜브나 검색을 통해 우선 무료 노지에서 캠프닉을 해보고 유료 야영장 예약하자!

6. 캠프닉 홍보대사 열매쌤의 추천글.

제대로 된 캠핑을 하려면 짐을 싸는 순간부터 짐을 정리하는 순간까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무박 차박과 캠프닉은 가볍게 다녀오기 좋은, 딱 힐링하기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날씨 좋은 계절, 또는 추운 겨울 따뜻한 집에서 낭만적인 캠프닉을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의 기사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뮤직T랜드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하세요! 모두 행복하세요~ ♥



두 번째 선생님 소개

퇴직 후 제 2의 삶을 꿈꾸며!
부천 상동고등학교
음악 교사 함예은



1. 예은 선생님의 취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뮤직T랜드 선생님들! 쑥스럽지만 저의 퇴직 후 제2의 삶을 상상하며 현재 빠져있는 저의 취미 '코바늘 뜨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코바늘을 이용한 뜨개질은 대바늘보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 입문자도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 취향이 담긴 다양한 생활 소품들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답니다. (내손내만!)

2. 취미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해요.

신규 발령을 받고 첫 직장인 생활을 시작하며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 퇴근 시간 이후의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전에는 학생, 임고생 신분으로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하며 사느라 온전히 나의 재미를 위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파워 집순이인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다가 인터넷을 통해 코바늘로 만드는 컵받침 키트를 주문하게 되었어요. 함께 첨부된 동영상 강의를 몇 번이나 돌려보면서 빠듯빠듯 너털너털한 첫 컵받침을 완성했지요. 그 후로도 꾸준히 하다보니 지금은 영상이나 도안 없이도 눈대중으로 원하는 걸 비슷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중급자(?) 정도의 스킬을 획득하였습니다. :)



4. 뜨개질의 가장 큰 매력은요?

처음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다가 점점 대량생산을 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만든 수세미, 가방을 선물하게 되었어요.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흐뭇해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기쁨을 준다면 두 배로 행복하죠!



널 위해준비했어



5. 취미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은요?

코바늘과 실은 저렴한 것부터 값비싼 것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입문자라면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바늘과 실을 추천합니다! 처음엔 자세와 움직임에 익숙해지는 것에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능숙해질 수 있어요!



6. 예은 선생님만의 코바늘 꿀팁

요즘엔 워낙 유튜브로 쉽게 코바늘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입장벽이 더 낮아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참고하는 채널을 소개해드릴게요. 선생님들! 집에서 한 번 도전해보세요!!



YouTube 슬로우플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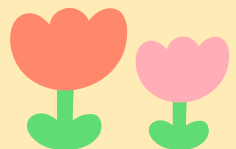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세요. 특히 코바늘 왕초보 기초과정은 입문자들에게 추천!

YouTube 슬로우모먼트

홈페이지에서 키트를 구입한 뒤 영상을 보며 만들 수 있어요.
가방, 에어팟 케이스, 파우치 등 다양한 소품을 만들 수 있는 키트를 판매해요.

YouTube 감씨앗 코바늘

귀여운 캐릭터 수세미들을 만들 수 있어요!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디테일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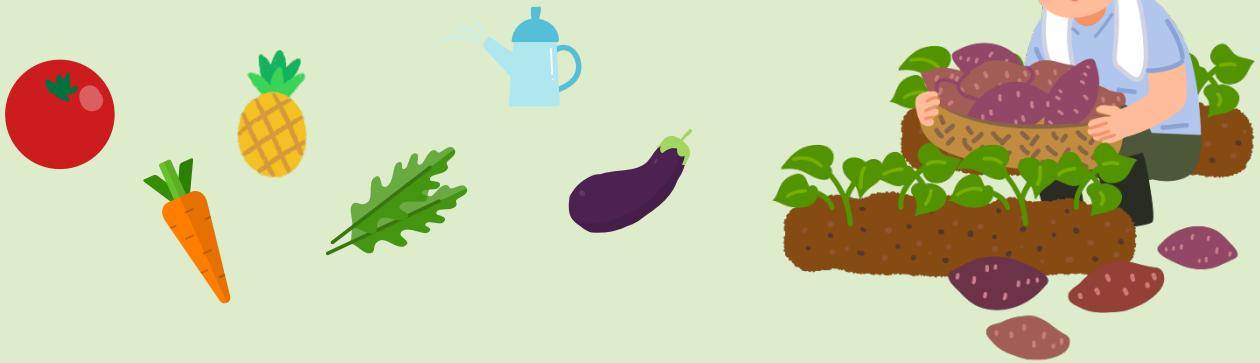


세 번째 선생님 소개 (초대선생님)



옥상농부 박썩

옥상에서 가족의 먹거리를 책임진다!
천안월봉중학교 역사 교사 박소영



1. 소영 선생님의 취미를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뮤직T랜드 선생님들! 뮤직T랜드에 제 기사가 실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아파트 옥상 테라스에서 화초와 텃밭 가꾸는 일을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물 유튜버로서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2. 취미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해요.

식물 가꾸는 일을 즐겨하셨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기도 했었고, 평소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작년 초 이사 온 집이 옥상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본격적으로 화초와 유기농 텃밭 작물들을 가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텃밭 취미를 통해 얻는 것은?

식물을 가꾸는 일은 소확행이자 힐링이 됩니다. 매일 식물들을 들여다 보면서 하룻밤 사이에 달라진 변화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텃밭 작물들의 경우 씨를 뿌리고 약120일 뒤 수확하기까지 매일 매일 성장 과정을 함께하는데요 이 자체가 힐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의 먹거리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자급자족의 기능이 있습니다. 가족이 먹을 만큼 적은 양을 제철에 맞게 생산해 내고 유기농 채소, 과일로 재배되다 보니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식물의 아름다움을 함께 즐기고 텃밭 작물들의 재배 과정을 함께 하다 보면 자연학습까지 가능해집니다.





4. 텃밭을 가꾸는데 가장 큰 장점은요?

식물을 키우면 홈인테리어적으로도 좋은 기능을 하는 것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집안에서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자급자족적인 기능이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거하게 되었습니다.

5. 옥상 텃밭을 가꾸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매일 아침, 그리고 퇴근후, 잠깐씩 식물 관리를 해주고, 주말에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식물 가꾸는데 필요한 것은 거름과 식물 지지대, 삽, 전지가위, 화분과 흙, 모종과 씨앗 정도인데 초기 자본만 조금 투입된다면 그 이후로는 크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6. 텃밭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꿀팁

처음부터 텃밭을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화분의 경우도 스티로폼을 활용 하거나 김치통을 활용하여 쓰게 되면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재철에 맞는 채소와 과일이 무엇이 있는지, 재배방법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 조금씩 공부해 가며 재배한다면 가성비 높은 유기농 작물을 재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초와 텃밭 작물들은 햇볕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키우셔야 효과적으로 가꾸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생님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논산 강경고등학교
음악 교사 조한나 입니다.

음악 중 제 자신을 찾게 해준 저의 소중한 취미를 소개합니다.



1. 한나 선생님의 취미를 소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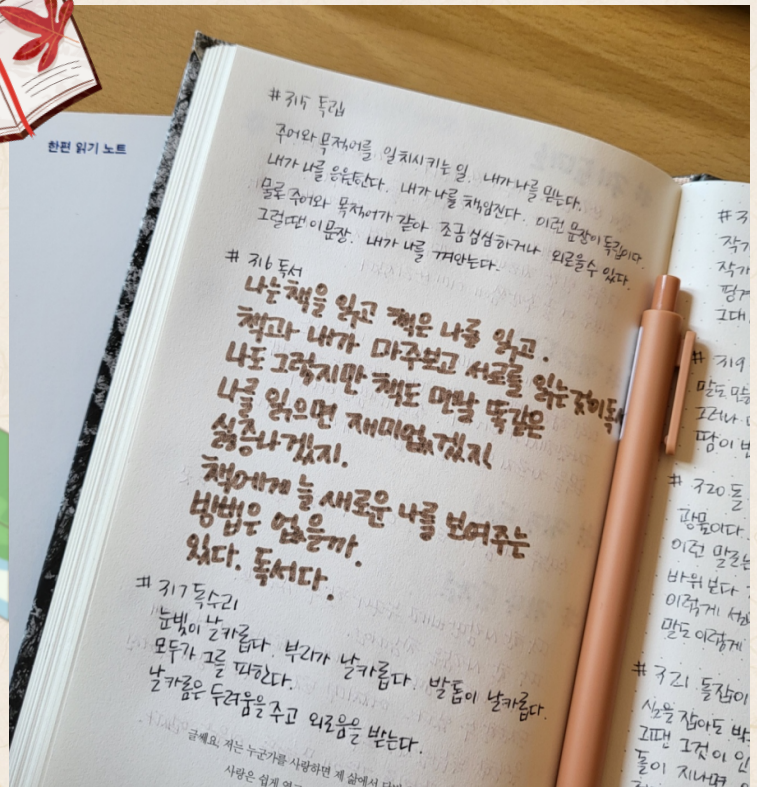
제 취미는 '독서'와 '필사'입니다.

하하,, 초등학교 때 특기 취미란에 쓰던 '독서'를 진지하게 제 취미라고 이야기하려니 벌써 진지해져 버렸네요ㅎㅎ 독서를 하다보니 자연스레 '필사'의 매력에도 빠져버렸습니다.



2. 취미를 시작한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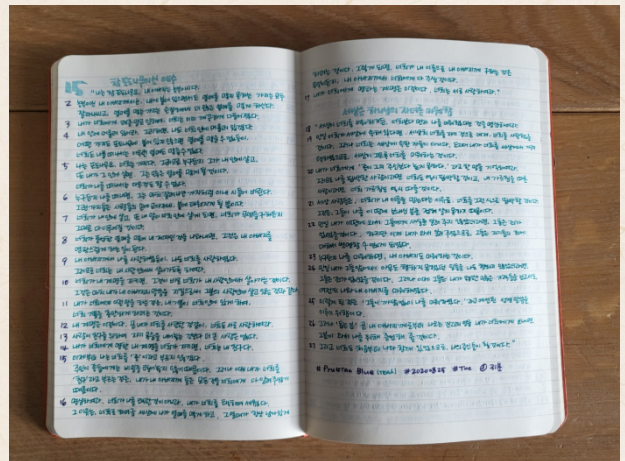
육아휴직을 시작하며 내가 하고 싶은 할 수 없게된 상황에서 무기력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애기가 깨지 않는 상황을 만들며 조용히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았던게 '독서'였습니다. 책을 읽고 난 소감을 SNS에 올리며 우연히 필사모임 모집 글을 보게되었어요. 필사의 시작은 그 때였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격려와 응원이 춤을 추게 하잖아요? 그 때 시작된 필사모임과 필사취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취미를 통해 얻는 것은?

우선 독서를 통해 내 시야 밖의 세계를 많이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좋아하는 분야의 책만 읽었는데, 책에 등장하는 다른 책들을 찾아서 읽다보니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경계가 넓어졌습니다. 이걸 수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악 수업이 음'학'만을 가르치는건 아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음악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게 음악교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독서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직도 아이들이 어려서, 학교 퇴근과 함께 집으로의 육아출근인데요, 필사를 하는 시간만큼은 오로지 나의 시간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인거죠.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자신감까지는 아니어도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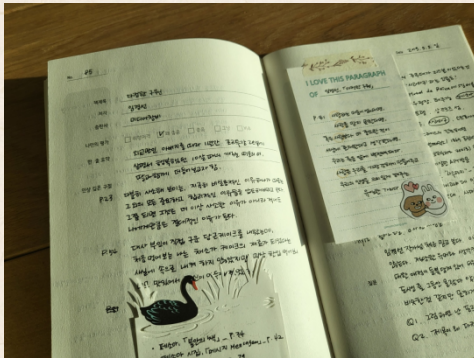
4. 필사와 독서의 매력은 뭔가요?

필사와 독서를 하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요(지금도 오프라인 독서모임과, 온라인 필사모임 참여중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언제나 긍정적인 응원과 힘을 얻습니다. 책에서 얻는 다른 의견들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 특별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피아노 혼자치다가 처음 투피아노를 해 봤을 때 느꼈던 희열을 독서모임에서 느꼈다고나 할까요?ㅎㅎ 서로의 응원과 격려가 좋아서 시작했던 필사모임은 어느새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필사에서 자연스럽게 글쓰기로 연결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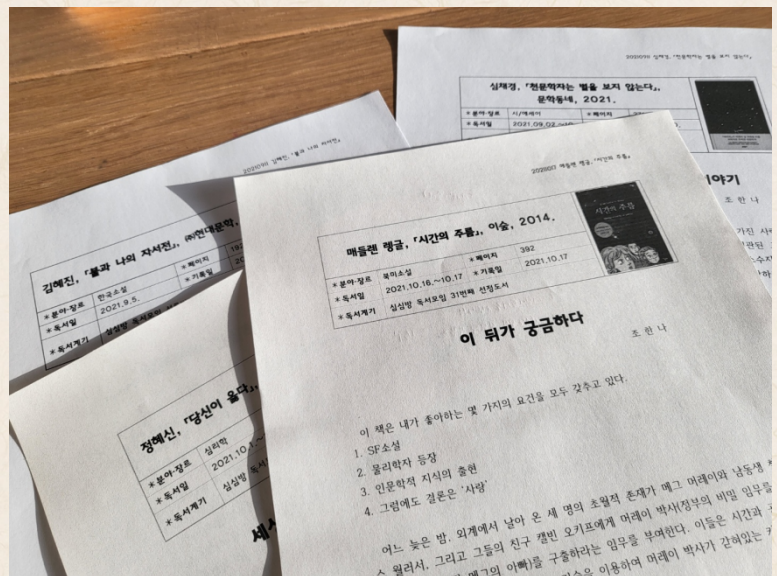
5. 일주일동안 필사와 독서에 들이는 시간과 장비

필사를 주로 이야기하자면, 처음엔 집에 돌아다니는 노트와 볼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 잘 써지는 펜, 비치지 않는 종이, 노트를 꾸미기 위한 마테나 스티커 등등 여러 도구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필사노트 만들기를 위해 하나 둘 사다보니 어느새 책장 한편이 다꾸용품으로 가득 차더군요ㅎㅎ 그런데 지금은 심플하게 글씨로만 노트를 가득 채우는 편입니다. 현재 저의 필사모임에서 <사람사전>이라는 책을 필사하는 중인데요. 하루에 다섯단어에 해당하는 분량 정도를 옮겨 적습니다. 저는 20분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6. 필사와 독서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독서든 필사든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면 더 즐겁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독서모임은 햇수로 4년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이 모임이 매번 기다려지고 재밌습니다. 사적으로 모이는 모임인데도 책 한 두 권을 가지고 꼭 빠져서 이야기하고 나면 뿌듯함으로 가득차입니다. 그리고 민음사나 문학동네같은 대형 출판사들은 자체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어서 일년에 일정금액을 내고 가입을 하면 출판사 주최의 독서모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 여러 모임들이 있어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독서든, 필사든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필사는 처음 하실 때 긴 분량의 책보다는 명언모음집이나 유유출판사의 '말들'시리즈도 좋습니다. 길지 않은 분량의 짧은 글들이 모여 있어서 시간을 많이 내지 않아도 하루의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선생님 소개

BAKERY

제빵왕 김탁구



베이킹에 진심인

천안신당고등학교 음악 교사 김진희



1. 교사계 제빵왕 김진희 선생님의 취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단 음식보다는 맵고 짭 음식을, 빵식보다는 한식을 좋아하지만 누구보다 홈베이킹에 진심이라 자부 할 수 있는 제빵사 꿈나무입니다.

2. 취미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해요.

원래는 자전거, 등산, 여행 등 밖에서 하는 취미들만 가득가득 가지고있었어요. 파워 외향인이 제 체질에 맞거든요. 그러다 다리를 다쳐서 1개월 병가를 쓰고 집과 재활센터만 오가게 되었던 적이 있어요. 이때 천장만 보고 누워있던 시간에 할만한 재미있는것이 있나? 생각을 하다 '안그래도 베이커리에 가는것도 힘든데, 집에 있는김에 만들어볼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답니다.

3. 베이킹을 하며 얻는 것은?

지방이 제일 크지만....^^;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리같은 경우엔 만들면서 맛도 볼 수 있고, 보완도 할 수 있지만 베이킹은 좀 다른거같아요. 밀가루, 버터, 설탕만 보고는 어떤 빵이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여러 배합으로 이 미지의 세계를 한창 유명하다가 두근두근한 마음을 안고 오븐을 열었을때 짜잔! 하고 맛있는 빵이 나오면 얼마나 기쁘던지요. 마음에 드는 맛있는 레시피를 찾아서 만들고 결과물이 좋은 빵이 되어 나올때의 성취감이 아주 짜릿합니다. 또, 공부나 운동처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나오는게 아니라 금방금방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와서 더 흥미가 느껴져요.



4. 베이킹의 가장 큰 매력은요?

만든 것을 혼자 다 먹기엔 너무 양도 많고, 얼려서 나중에 먹자니 냉동실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사람들이랑 종종 나누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나 교무실 선생님들과 함께 달콤한것을 나누며 가지는 티타임이 너무나 소중한 사랑스러운 시간이 되었어요. 이 시간들로 인해 제 취미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구요. 또, 건강관리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버터 대신 식용유로, 통밀과 대체당을 활용해 만들어 드렸을때 자녀로서 조금은 안심이 되어 기쁩니다.

교무실 맥모닝 time~



5. 베이킹 소요 시간과 사용하는 장비.

간단한 제과 종류들(쿠키, 머핀 등)은 1시간이면 재료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끝낼 수 있어요. 반면에 제빵(발효가 필요한 식빵 등)은 발효시간 포함해서 3~4시간정도 소요가 돼요. 그 중 발효를 기다리는 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가 있는데 저는 이 때 실내자전거를 타거나 밀린 집안일을 합니다.

장비는 맨 처음 자취방에서 작은 미니오븐과 쌀 씻을때 쓰던 볼로 출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해볼까 싶어서 실리콘 주걱과 도깨비 방망이 거품기를 들였구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된 건 이사와서 생긴 빌트인 오븐이랍니다.



6. 초심자에게 추천해 줄 만한 메뉴는요?

사브레 쿠키, 머핀, 파운드케이크, 스콘등을 추천드릴게요. 위 메뉴들은 밀가루(박력분), 버터, 설탕, 계란, 우유 만으로도 자랑 할 수 있는 맛이 나온답니다. 같은 재료인데 다른 과정으로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경험을 손쉽게 느껴보세요!



베이킹
어렵지 않아요~



7. 제빵왕 꿈나무님이 전수하고 싶은 꿀팁.

재료를 다 사기 힘들다면 노브랜드에 가서서 1000원짜리 이스트 한 봉지만 사세요. 밀가루, 소금만 있어도 식사 대용의 충분히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니까요. 먼저 도전해 보고 기쁨이 느껴진다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확장 해보는 것을 추천할게요. 어느 맛집보다 가장 맛있는 빵은 갓 만들어 나온 따뜻한 빵 인건 다들 아시죠? 직접 도전해 보세요!



빵사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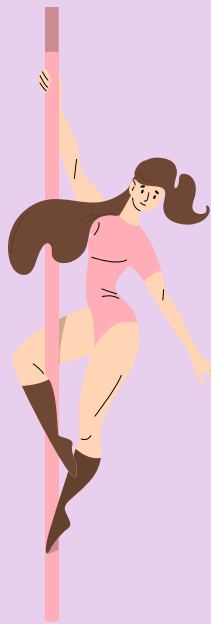


베이킹에 진심인



사람들의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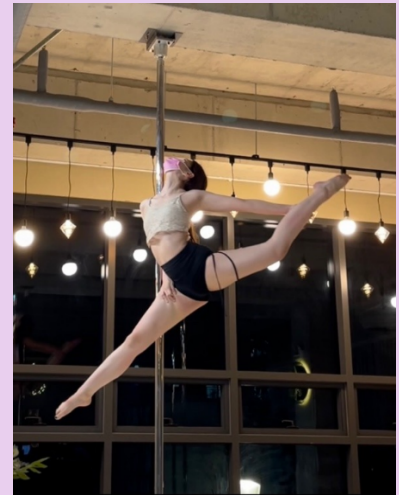




여섯 번째 선생님 소개



폴댄스 여신, 교사계 스우파댄서
김포 푸른솔중학교 음악 교사 김서연



1. 서연쌤의 취미를 소개해주세요.

저의 취미는 폴댄스입니다. 폴댄스는 세로로 길게 고정된 폴에서 다양한 동작을 하며 근력과 유연성을 뽐내는 운동입니다. 요즘은 폴아트, 폴스포츠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 취미를 시작한 계기에 대해 궁금해요.

어렸을 때부터 춤 추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발레나 현대무용 등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맛있는 걸 보면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데 중학교 3학년 때 아델의 노래에 맞추어 폴댄스를 추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고, 지금보다 폴댄스가 많이 알려지지도 않아서 어른이 되면 배워야지 라고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대학을 가고 어른이 되어도 주변에 폴댄스 학원도 없고 삶이 바빠 계속 배우지 못하고 있다가, 폴댄스 영상을 본지 딱 10년이 된 작년 12월에 근처 학원에 등록을 하러 가서 지금은 폴댄스 11개월차 폴린이가 되었습니다.



3. 폴댄스 취미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체를 활용한 취미이다보니 기본적으로 근력과 유연성을 얻을 수 있고, 고통과 멍, 흉터, 근육통, 부상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우선 폴댄스는 매일 매일 다른 동작을 배웁니다. 1분정도 여러 동작을 엮어서 안무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매일 바뀌다 보니 하루하루 그 동작들을 소화하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폴아트라고 불릴 만큼 몸선을 예쁘게 보여주는 동작이 많고 그걸 영상을 찍으면서 운동을 하다보니 마음에 드는 영상을 찍은 날에는 운동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30번씩 영상을 돌려본답니다.

또 하나는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빙글빙글 돌면서 하는 운동이라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데, 옆에서 다른 회원님들이 '발 포인~ 무릎 더 펴고~'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저보다 훨씬 오래 운동을 하신 분들은 제가 동작을 못하고 있으면 다가와서 요령을 알려주시기도 하세요. 또 뭐 하나 성공하면 박수치고 나이스~ 외쳐주시고 서로 응원하는 문화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생기게 된답니다.

4. 폴댄스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은요?

폴댄스는 중독성이 있는 운동이에요. 보통 운동을 하다보면 3개월 회원권이 끝나면 그만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폴댄스는 한 번 시작해서 적성에 맞으면 1~2년은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예쁘고, 성취감이 어마무시하다는 두 가지 장점이 중독성에 큰 요인인 듯 합니다.

폴댄스도 다른 운동이나 취미처럼 권태기가 오기도 하거든요. 폴태기라고 하는데요. 컨디션이 안좋거나 운동하기 귀찮고 그런 날도 있고요, 그럴때에도 선생님들이 오늘은 이거 배우실 거예요~ 라고 학원 sns에 영상을 올린걸 보고 '헉헉 예쁘잖아!!! 오늘은 학원 가야해!!' 이러고 급하게 챙겨서 나갈 때도 많고요. 실력이 생각만큼 늘지 않아서 권태기가 왔을 때도, 회원권이 아까워서 열심히 폴을 다니다가 안되던게 딱 될 때!! 그때 재등록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폴태기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은 폴웨어 사기입니다. 세상에는 너무 예쁜 폴웨어가 많아요. 장비 구입이라고 해두죠...



5. 폴댄스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폴댄스에 드는 비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회원권의 경우, 저는 주 3회 3개월 권을 항상 등록하고 있어요. 1회당 비용은 약 2만원입니다.

요가보다는 비싸고, 필라테스 보다는 저렴한 정도인 것 같아요.

장비는 1. 폴웨어, 2. 그립제와 기타 물품들이 있습니다. 폴웨어는 폴을 탈 때 입어야하는 운동복인데요. 살과 폴의 마찰로 버텨야하는 동작이 많아서 일반 옷을 입으면 그대로 미끄러진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짧은 반바지에 민소매티나 스포츠탑 등을 입으시는데, 원래 모든 운동과 취미생활이 그렇듯, 제대로 갖춰입으면 더 잘되는 법이잖아요? 게다가 폴댄스는 영상을 찍다보니 예쁜 폴웨어에 대한 욕구가 엄청 생깁니다. 폴웨어는 한 세트에 싸게는 6만원에서 비싼 것은 11만원 정도로 꽤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다른 스포츠 웨어에 비해 시장이 좁고, 소규모로 운영하는 업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확실히 소재가 좋기도 합니다. 초반엔 그 비싼걸 매달 샀어요.. 지금은 자숙기간입니다. ππ 폴웨어 말고도 기타 장비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필수로 갖추셔야하는 것은 그립제입니다. 손에 땀을 말려서 폴에 착 달라붙게 하는 그립제가 있어야 힘이 좀 부족해도 버틸 수 있어요. 손은 건조하게 몸은 축축하게 만들어야 폴에 찰싹! 달라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하고 부상없는 폴링을 위해 손목과 대과 의료용 테이프도 있으면 좋습니다.



6. 폴댄스 어렵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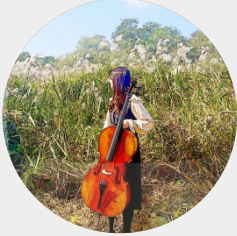
거의 모든 폴 학원들은 체험 클래스가 있어요. 그걸로 미리 체험을 한번 해보고 도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노출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학원들이 대부분 여성전용이고, 다들 폴웨어 만입고 다니다 보니 한 일주일만 다녀도 노출을 했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운동하러 왔구나~ 합니다. 경력이 쌓이고 어려운 동작을 할수록 더 노출이 필요하기도하고, 노출보다는 당장 내다리가 길어 보이고 동작이 시원시원해 보이는게 중요해지면 엉덩이도 까고 배도 까고 그래요~

일단 학원을 등록하면 민망해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동작을 예쁘게 표현하는데 집중해보세요.

손끝 발끝 신경써서 폴을 타면 간단한 초급동작이 더 우아하고 예쁘답니다. 도전해보세요 선생님들!



편집후기



에디터. 노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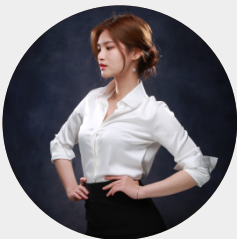
"음악 수업이 즐거우면 내 삶이 즐거워진다" 음악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치열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음악 회를 마치고 연주는 처음이었어요. 말하는 학생, 리스트 피아노 곡을 잘 연주하고 성에 안 차서 우는 학생... 음악적 경험은 달라도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은 같았겠지요...

음악에 대한 마음만으로 시작한 뮤직 트렌드...고된 하루 끝 밤까지 진행된 회의를 통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전국의 음악선생님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미있게 읽어 주세요^^



에디터. 양다예

안녕하세요 열매쌤입니다. 저는 현재 임신 5개월 차, 육아휴직 중으로 초기에는 입덧이 너무 심해 2호 작업에서는 빠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에디터분들의 많은 배려로 2호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 훗날 뿌듯하고 재미있었던 태교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도 부디 뮤직T렌드 2호가 재밌고 알찬 잡지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뮤직T렌드도 파이팅♡



에디터. 김서연

안녕하세요 서연쌤입니다. 드디어 뮤직T렌드 2호가 나왔습니다 (짜싹짜) 두 번째로 만드는 잡지라 손에 조금 익어 작업 속도가 빨라지기는 했지만 1호를 너무 좋아해 주신 덕분에 부담감이 있어서 수정 또 수정을 했습니다. 이번 2호를 읽으시면서 알차고 재밌는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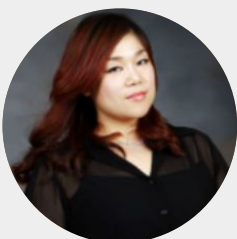
에디터. 이지영

벌써 11월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창간호를 끝내고 2호는 원고 미리미리 끝내야지 다짐했건만 주제를 잡는 데에만 한참이 걸리고.. 결국 마감에 쫓기는 것은 변함없었어요. 빠른 마감은 역시 희망사항이었던 듯합니다. 전 이렇게 헤매었지만 다른 능력자 에디터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도 멋진 잡지가 완성된 것 같아요. 읽을거리가 다양하니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뵙요~! ㅎㅎ



에디터. 전진우

어설픈 글로 잘못된 지식을 전달할까 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 봐, 나의 약점을 드러낼까 봐 타인에게 읽히는 글을 쓰는 것은 저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제가 또다시 기사를 완성하고 편집후기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탈고지만 여전히 글 쓰는 것은 무섭고 어렵습니다. 3호쯤 되면 나아질까요?



에디터. 홍정선

벌써 연말을 앞두고 있더니 믿기지 않아요! 정신없이 지나온 2학기 마무리 시즌, 굴광주리 옆구리에 끼고 뮤직트렌드 읽어주세요! 2호도 재미있다는 소리 많이 나오면 좋겠는 홍리다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살았고, 후회 없어요. 내년에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잊지 마실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행복입니다. 음악쌤들 모두 화이팅!



뮤직T랜드는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음악교사로서 나누는 이야기, 음악교사로서 알아야 할 정보,
음악교사로서 뜻깊었던 이야기 등등 우리의 음악교육의 삶을 역사로 남겨봅시다.
이제 2악장 시작입니다. 독주곡에서 천명의 교향곡으로 만들어봅시다!



MUSICTLAND (뮤직트랜드)

2호 발간일	2021년 12월 8일
발행인	홍정선 · 노혜원 · 이지영 · 양다예 · 전진우 · 김서연
메일	musicland@naver.com
인스타그램	@musicland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하며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인 뮤직트랜드 발행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